

굿모닝인천
2007. 5



Congratulation!
Incheon Hosts The 2014 Asian Games

2014년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열립니다

270만 인천시민의 열원과 응원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Good Morning
INCHEON

인천광역시

이제는 빠르고 경제적인 만월산터널입니다



- 한발 앞선 市政으로 간석지구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
- 부평, 계양상권과 남동공단, 송도신도시를 잇는 최단의 남북간선도로!
- 당 터널 이용시 약 2km 단축
예) 택시 주행료 1,300원 > 터널 통행료 700원



만월산터널(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35-2
전화 : 032)467-9200 FAX : 032)467-2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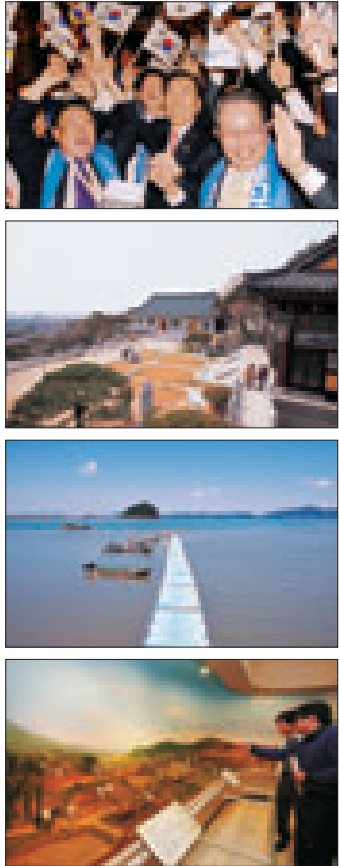
Good Morning INCHEON

| 2014년 '아시아 게임 유치'의 해 |

COVER
눈이 내린듯한 수산동의 배꽃



contents May 2007 통권 161호



04	The 2014 Asian Games	2014인천아시아게임 유치 확정
06		유치의미
08		이렇게 치른다
10		유치효과
12	가보니 좋았더라	강화군 주문도
14	OPEN	부평역사박물관
16	인천 즐기기	5월의 인천축제
18	자매도시 우호도시 ③	베트남 하이퐁시
19	글로벌 매너 & 에티켓	호텔은 자기 집이 아니다
20	Incheon World City Expo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22	글로벌인천	귀화 결혼이민자
25	생활법률, 아하 그렇군요	난 정말 모르고 찍었어요
26	굿인천 굿뉴스	'송도국제도시에 책 니클로스 골프장' 외
30	사의회 소식	'지방재정제도 시행에 따른 설명회' 외
32	인천이 담긴 詩 ⑤	최병구의 월미도
34	모닝커피 한 잔	생명에 대한 감탄과 경탄 사이에서
35	김치찰락	'앗 졸려' 외
36	도심 속 인천 느끼기	흥륜사(興輪寺)
38	문화마을 순례	창작의 열정이 뜨겁다 '골장'
40	이달의 공연	'눈으로 듣는 이야기-동화 속으로 II' 외
4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월 기획공연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월드투어 콘서트
42	5월 가정의 달 특별공연	'어린이날 특집 가족뮤지컬 백설공주와 야미안왕자' 외
43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특별전시회	이광환 일기
44	Healthy life 건강백세	간질환
45	2014년 아시아게임 인천유치 기원 오행시	
46	꿀돌이·꿀순이와 떠나는 인천 격동한세기 ⑤	웃터골 운동장과 한용단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임승관 씨
52	독자글 마당	이번달 주제 '가족'
54	Info box	'시민참여예산 분야별 TV토론회 열립니다' 외
59	신(新) 인천어부사시사	즐거웠던 영랑당여리 '꽃게'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 광고문의 (032-440-2071)

발행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7년 5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
편집인 공보관 이일희
공보담당 사무관 조형도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편집위원 정경숙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하장원(시 공보관실)
김성환(자유사진가)·김정식(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성광디자인(주)
인쇄 (주)한성인쇄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0억 아시아인 인천을 택했다

“Incheon!”

하늘과 아시아인들이 인천을 택했다. 지난 4월 17일 쿠웨이트 J W 메리엇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에서 인천은 인도 뉴델리를 제치고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결정됐다.

셰이크 아메드 알 사바 OCA 회장이 “Incheon!”을 외치는 순간, 현장에 있던 안상수 시장, 김정길 대 한체육회 회장 등은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부르며 환호성을 올렸다. 그 순간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 모인 3천여명의 시민들도 축포 속에 만세를 부르며 서로 얼싸안고 유치의 기쁨을 나누었다.

인천 만세!

인천은 총 45표 가운데 32표를 획득해 13표의 뉴델리를 압도했다.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권 획득은 인천시와 시민이 지난 2년 가까이 총력을 쏟은 값진 결실이다. 신용석 인천아시안게임유치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OCA회원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특히 아시아의 스포츠 약소국들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시장도 “인천아시안게임이 올림픽 수준으로 훌륭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인천을 지지해준 OCA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



아시아 미래 인천이 이끌어 간다

‘Even Onward with Incheon(인천과 함께 미래를 향해)’

유치전에서 내건 우리시의 캐치프레이즈이다. 미래 학자들은 21세기를 ‘아시아의 시대’로 예고하고 있다. 이제 세계의 기(氣)가 아시아로 몰리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 비중의 50% 이상을 점유해 세계 경제의 큰 축으로 성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로 스포츠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아시아의 확실한 리더 도시로 발돋움하며 아시아의 미래를 책임질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을 갖춘 인천은 이제 ‘세계 10대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은 우리시가 구상하는 ‘세계 도시화’ 과정의 완결판이 될 것이다.



아시안게임 유치 일지

2005년	
3월 2일	제17회 2014 아시안게임 유치의향서 제출서한 접수(OCA-KOC)
3월 9일	대한체육회(KOC) 아시안게임 국내유치 결정
3월 31일	유치의향서 제출(KOC-OCA / 한국, 인도, 베트남, 요르단)
4월 25일	KOC위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국내 후보도시로 인천 선정
6월 23일	정부승인(국무조정실)
6월 29일	유치신청서 제출(인천시-OCA사무국, 베트남, 요르단은 포기)
9월 8일~9일	광저우 OCA총회 및 집행위 참가로 해외 유치활동 시작
12월 20일	아시안게임 인천유치위원회 창립총회
2006년	
11월 12일~14일	OCA평가단 인천 현지 실사 및 23개 항목 프리젠테이션
12월 1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2014 아시안게임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2007년	
2월~4월 17일	인천시장, 유치위원장, 인천시의회 등 13개 OCA회원국 방문 유치활동
4월 6일	국회의장, 국무총리 OCA회원국에 지지 요청 서한문 발송
4월 17일	쿠웨이트 OCA총회에서 2014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인천 선정



2 0 1 4 I n c h e o n A s i a n G a m e s 한자도 알고 ALTA



V i s i o n 2 0 1 4 I n c h e o n A s i a n G a m e s

올림픽 버금가는 아시안게임 치른다

- 대회명칭 :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17th Asian Games 2014)
- 대회기간 : 2014년 9월 19일~10월 4일(16일간)
- 주 최 :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 주 관 :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인천광역시
- 대회장소 : 인천광역시
- 대회규모 : 45개국 OCA회원국 12,000여명(임원, 선수)
- 대회종목 : 37개종목(예상)

우 리시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된 도시다.

첨단 기능을 갖춘 국내 최대규모의 문학경기장에 2014년 9월이면 아시아 45개국의 1만2천여명 선수가 모여 아시아인의 스포츠제전을 치른다. 16일간 인천 전역에서 펼쳐지는 아시안게임은 37개 종목에서 424개(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기준)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열전을 벌이게 된다.

우 리시는 2002년 월드컵을 비롯해 2005년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훌륭하게 치러낸 문학경기장을 메인스타디움으로 활용하고 6개 지역에 스포츠 종합시설을 건설해 경기를 치를 계획이다.



우선 메인스타디움으로 사용할 문학경기장에서는 47개의 금메달이 걸린 육상경기가 열린다. 축구경기는 남동종합경기장에서 예선을 벌인 뒤 3, 4위전과 결승전이 월드컵 신화의 땅인 문학경기장에서 열린다.

아시아경기에 채택된 37개 종목의 경기를 치르기에는 메인스타디움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때문에 문학경기장은 주경기장, 야구장, 보조경기장 등 기존 시설에 체육관, 실내수영장을 새로 보강해 메인스타디움에 걸맞은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45개국 선수단이 묵을 선수촌 건립도 서두른다. 문학경기장 인근의 선학동 15만평 부지에 18~47평형 아파트 2천300가구와 복지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선수촌 뒤편 54만평의 그린벨트는 아시안게임 특별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을 완화한 뒤 퍼블릭 골프장과 생태 및 체육공원을 지을 계획이다. 아시안게임 이후 아파트는 일반 분양되며 선수촌 내 복지시설은 초·중학교로 전환된다.

여기에 지난해 문을 연 아시아 최고 시설로 평가받는 삼산월드체육관이 보조를 맞춘다. 또한 남구송의동 종합경기장은 개보수하고 수도권매립지 내 98만평에는 승마장, 카누·조정경기장, 사격장, 수구장을 갖춘 '드림파크'를 건립할 예정이다.

새로 짓고 있거나 계획돼 있는 종합경기장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됐다. 계양구에는 인조잔디가 깔린 하키 경기장을 비롯해 탁구와 우슈경기가 치러질 종합경기장이 건설되고 서구·남동·송도종합경기장 건설도 진행된다. 인천국제공항과 접해있는 무의도에



는 요트 경기장을 건립해 대회가 끝나면 해양스포츠 중심의 국제 레저관광단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우 리시는 최고의 대회를 약속한 만큼 첨단체육시설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부천과 수원, 안양, 고양, 안산 등 30분 거리에 있는 인근도시의 경기장을 충분히 활용해 과다한 시설투자를 막고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제 아시안게임, 화합의 아시안게임'을 치러낼 계획이다. 🐦



스포츠 마셜 플랜 'VISION 2014'

아시아경기대회는 스포츠교류의 차원을 넘어서 '아시아는 하나'라는 사실을 재인식하는 40억 아시아인의 종합 스포츠 축제이다. 쿠웨이트에서 열린 OCA총회에서 우 리시는 'VISION 2014' 프로그램을 제시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의 스포츠 약소국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2000만달러(약 190억원)를 들여 2014년까지 아시안게임에서 메달획득이 어려운 스포츠 약소국을 상대로 유망 청소년들을 발굴해 인천에 머물며 태권도와 볼링, 핸드

볼 등 11개 종목의 스포츠 외교를 펼치고 해당 국가에는 스포츠 인프라 확충, 체육훈련 등을 지원해 아시아 스포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VISION 2014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은 각 나라의 청소년선수들은 7년 뒤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문학벌을 뜨겁게 달굴 것이다. 그 선수들이 메달을 따내는 기쁨을 맛보게 하자는 VISION 2014는 가히 아시아 스포츠계의 '마셜 플랜'으로 불릴 만하다.

아시안게임 디딤돌 세계 10대 도시로 ‘점프’

우리가 시민들의 힘을 모아 이토록 간절히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려 노력한 것이 경제적인 효과 때문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시안게임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에 이어 세 번째다. 참가국 숫자는 올림픽이 많지만 경기 종목이나 참가 인원을 놓고 보면 아시안 게임 규모가 올림픽을 훨씬 뛰어넘는다.



지난해 7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2014 아시안게임의 경제적 이득은 전국적으로 생산유발 효과 13조원(인천 10조 6천억), 부가가치유발효과 5조6천억원(인천 4조 5천억), 고용유발효과가 27만여명(인천 20만여명)으로 분석됐다. 이를 종합하면 19조원에 달하는 경제 이익이다.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벌어들일 수 있는 예상수익도 약 2천억원에 이른다. 중계권료 등 방송사 수입이 210억원, 광고수입 1천억원, 티켓수입 250억원, 특허권 사업 수익 250억원, 복권사업 150억원 등을 감안한 계산이다. 이 수익 가운데 OCA가 지정할 대행사 수수료 18%와 OCA측에 지불할 수익분담금 33%를 제외하면 순이익은 1천억원을 조금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예상 최대치이기는 하지만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수익이 55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고, 12년 뒤인 2014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을 적용해보면 결코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시안게임 인천유치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과 통신, 교통 인프라 구축이 국고와 시비, 민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산시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후 지하철 3호선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국고를 지원받은 바 있다. 여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가히 무한대이다. 여기에 아시아 40억 인구의 눈과 귀가 몰릴 인천 아시안게임은 송도국제신도시의 거대 해외자본의 투자유치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2년 아시안게임을 훌륭하게 치러냈던 부산도 2020년에는 하계올림픽유치에 도전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우리시에 적용해 보면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훌륭한 도시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다면 우리시에서도 하계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셈이 되는 것이다.

구 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고용유발효과
건설분야	8조7천477억원	3조6천66억원	13만5천40명
관광분야	3조7천8억원	1조6천927억원	12만4천510명
대외운영 및 기타	4천843억원	1천988억원	8천950명
계	12조9천328억원	5조5천575억원	26만8천500명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우리 인천은 더 이상 수도 서울의 관문도시가 아닌 동북아허브공항이 위치한 미래형 신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2014년이면 경제자유구역의 완성된 모습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시는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터이니 이는 숫자로 바꿀 수조차 없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로 평가될 것이다. 🍌



올림픽 vs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은 월드컵,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다음으로 5대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다. 참가국은 전 세계가 참가하는 올림픽이 훨씬 많지만 시종종종과 참가인원은 아시안게임이 더 많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의 경우 202개국 1만500여명이 참가한 반면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에는 45개국에서 1만2천여명이 참가했다. 금메달수도 424개로 아테네 올림픽의 301개 보다 많았다. 올림픽은 예선과 기준기록을 통과해야하는 등 출전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아시안게임은 출전이 자유롭고 종목도 자주 늘어나는 추세여서 2014년 아시안게임에는 참가선수단 규모가 많게는 1만5천여명 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올림픽에서도 종합순위 10강 대열에 올라있어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안게임의 열기가 대단했다.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OCA회원국 45개국 가운데 절반 이상은 현실적으로 올림픽 메달 획득이 아예 불가능해 아시안게임에 더 열광한다. 아시아의 스포츠 약소국들의 경우 올림픽 메달과는 거리가 먼 것을 감안하면 아시안게임이야말로 아시아인의 정서통합에 기여하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다.

갈매기조차 숨죽인 바다의 고요

절대고독을 일상으로 삼는 섬. 그 곳으로 가는 길은 늘 고독하다. 봄에게 십사리 제 품을 내주지 않는 4월의 쌀쌀한 바다. 해무(海霧) 낀 주문도 앞바다에서는 하늘과 물이 한 몸이 된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석모도 너머 주문도

강화 외포리에 가면 건너편 석모도보다 더 먼 섬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까지 가는 배가 정박해 있다. 주문도는 석모도 너머에 있는 자그마한 섬이다. 외포리를 떠난 여객선은 뱃머리를 남으로 향하고 석모도 해안을 훑듯이 미끄러지며 먼 바다로 향한다.

갑판에 올라 바람을 안고 서니 올망졸망 강화에 딸린 섬들이 가슴팍으로 밀려왔다가 이내 뒤로 처진다. 스크루에 의해 일어나는 하얀 포말이 검은 바다에 보푸라기 일어나듯 한다.

배는 석모도의 꼬리 어류정의 앞바다를 가로지른다. 어류정(魚游井)은 말 그대로 '고기가 물 속에서 노닌다'라는 뜻으로 그곳은 한때 젓새우와 꽃게의 황금어장이었다. 이젠 옛 이야기가 돼 버렸지만 아직도 조그만 고기잡이 배들이 선단을 이루며 그물질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주문도 가는 배는 완행이다. 바로 직행하지 않고 볼음도, 아차도를 들렀다가 간다. 세 섬 사이에 갇힌 바다는 호수처럼 고요하다. 주꾸미 잡는 어선 위를 땀도는 갈매기들의 한적한 비행이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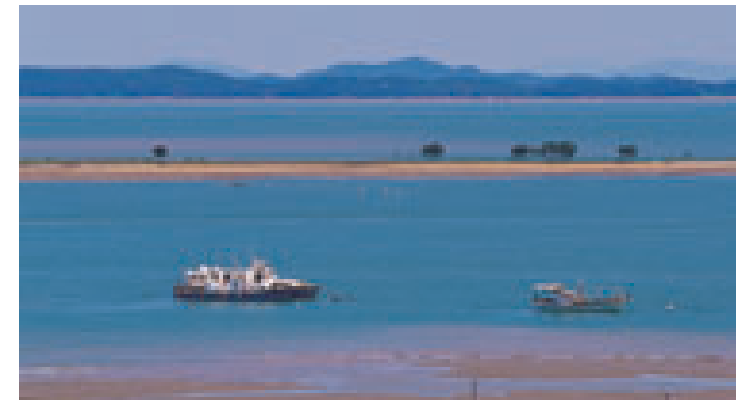
외포리 떠난 지 1시간30분 만에 주문도에 도착했다. 주문도란 이름에는 짧은 전설이 하나 전해 온다.

섬은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라
말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갯벌은 언제나 섬 주민들에게
젓과 꼴을 공급하고 있다.



가는 길

주문도는 강화 외포리에서 하루 2차례(오전9시, 오후4시) 운행하는 여객선을 탄다. 외포리-볼음도-아차도-주문도의 순으로 운행한다(삼보해운 ☎ 932-7324). 차량도 실을 수 있다. 당일 여행도 가능하며 민박집이 여럿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1박 여행도 가능하다.



조선의 임경업 장군이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 이 섬에서 임금께 하직 인사 글을 올렸다하여 아될 주(奏), 글월 문(文)을 써서 주문도(奏文島)라 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월이 흘러 지금은 주문도(注文島)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수평선과 지평선이 맞닿는 망망갯벌

주문도에는 대빈창, 뒷장술, 앞장술 등 구수한 발음의 해수욕장이 있다. 대빈창 해수욕장은 조선시대에 중국사신을 영접한 대변청이 있던 곳이다. 물 가까운 쪽은 모래밭, 그 위쪽은 몽돌밭으로 돼 있는 해변이다. 해수욕장을 둘러 친 소나무 숲이 일품이다. 여름철에는 천연에어컨 바람이 솔솔 부는 그늘막이 될 것이다.

뒷장술해수욕장은 고운 모래사장이 1.5km 정도 펼쳐져 있다. 물이 완전히 빠지면 2km가량 떨어진 분점도(분지도)까지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망망갯벌이 펼쳐진다. 그 바다는 청정지역으로 상합, 가무락, 틈부락이라 불리는 조개들이 그들먹하다. '섬은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갯벌은 언제나 섬 주민들에게 젓과 꼴을 공급하고 있다. 분단되기 전에는 황해도 해주만 입구까지 원정가서 조개를 캐 오기도 했다고 한다.

뒷장술이 있으니 앞장술도 있다. 앞장술해수욕장은 앞서 두 해변보다 덜 알려진 곳이다. 덕분에 사시사철 섬 특유의 한적함에 흠뻑 빠질 수 있다. 갈매기조차 숨을 죽인 그 바다에서는 아련하게 해조음을 들을 수 있다. 해조음을 들으면서 바다의 침묵을 배운다.

섬 중앙에는 서도중앙교회라는 유서 깊은 전통 한옥교회가 있다. 1902년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가 1923년에 주민들의 헌금으로 새로 건립되었다. 황해도 해주에서 목재와 기와를 날라다가 지었다고 한다. 정면에서 보면 2층 종루(鐘樓)형태의 지붕이 얹혀져 있는데 종루에는 옛 이름인 진촌교회(鎭村敎會) 현판이 걸려 있다. 본당 쪽은 일반 한옥 형태의 팔각지붕으로 동서양이 절묘하게 조화 된 예배당이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서까래의 형태가 마치 고래 뱃속의 갈비뼈처럼 보인다. 주문도에 와서 이 교회 하나만 보고 가도 섬 기행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



과거를 **현재**에 녹여 **미래**로 간다

부평(富平)은 역사적으로 인천지역과 함께하다가 분리되고 다시 합쳐지는 과정에서 독특한 지역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부평은 이름에서 보듯 기름진 평야지대를 끼고 발전한 도시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인 부평역사박물관. 부평문화권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며 산업화에 밀려 자취를 감춘 농경문화의 흔적을 복원시킨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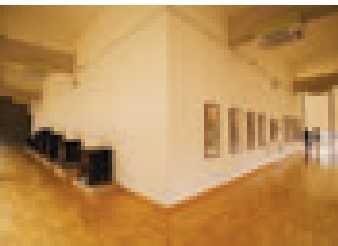
글 · 김애란 남동마당 기자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사계절의 부평벌 재현

부평역사박물관은 삼산택지 인근에 지상2층 지하1층의 말끔한 건물로 자리하고 있다. 잘 정돈된 현대적인 건물에 2개의 부평역사실과 농경문화실, 회랑, 기획전시실, 야외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층에 자리한 '농경문화실'에 들어서면 박물관 테마전시가 눈길을 잡는다. 디오라마기법으로 파종에서 수확까지 사계절에 걸친 부평벌의 농사과정이 재현돼 있다. 새소리, 물소리 등을 살려 실제감을 더했으며 벽면에 회화적으로 원근감을 표현한 스카시기법을 사용하여 사계절 농가의 생활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 전시실에는 농기구와 농경서적 그리고 세시풍속, 민속놀이 기구를 독창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농사일정, 세시풍속, 놀이, 제철음식 등을 알려주던 농가월령가를 애니메이션으로 연출해 벽면에 빔프로젝트로 상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선사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부평역사와 문화유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부평역사1실'을 들어서면 부평지역의 고지도와 부평문화권을 미니어처로 제작한 유리바닥을 딛게 된다. 경서동도요지 녹청자 복제품과 정조대왕 어가행렬이 전시돼 있고 지도로 보는 부평행정의 변화, 지명 유래로 보는 부평의 근대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이 전시실에는 일제강점기의 군수품 노동자의 공동주택이었던 미쓰비시 사택이 80% 축소 모형으로 제작되어 있다. 1900년부터 광복 전까지 사용했던 라디오, 나무냉장고, 재봉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전시돼 있으며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지급되었던 붉은 군용수표가 전시돼 있어 지난 시간의 아픔을 울컥 전한다.

문턱 낮춘 살아있는 박물관

외벽을 통유리로 만든 전시실 밖의 회랑은 3개의 면을 돌아가면서 작품과 외관을 감상할 수 있는 있는 열린 공간이다. 이곳에는 옛 양반 댁에서 쓰였던 목가구들과 서예, 회화, 산수화, 사군자 등을 전시하고 있다. 유리벽 안은 16~17세기, 밖은 21세기로 시공 차이의 묘한 느낌이 드는 공간이다.

정보 라이브러리는 컴퓨터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관계도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부대시설 공간이다. 토론을 할 수 있는 열린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정보의 스피드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1층의 '부평역사2실'로 내려오면 1970년 이후 현재까지의 모습을 담고 있다. 부평구의 최근 모습과 미래상을 담은 '부평비전21 마스터플랜'을 볼 수 있다. 미니어처로 제작된 행정·

개관시간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요일, 국경일 휴관)
관람료 | 일반인 500원, 청소년 300원, 어린이 200원
찾아가는 길 | 부평역 하차 후 마을버스 565번, 566번 (굴포초등학교 뒤) 또는 좌석버스 111번 삼산주공1단지 하차 후 도보 10분 (삼산2동사무소 옆)
문의 | ☎ 515-6472

연표로 보는 부평행정구역의 변화

475	(고구려 장수왕 63년)	주부토군
757	(통일신라 경덕왕 16년)	장제군
940	(고려 태조 23년)	수주
1150	(고려 의종 4년)	안남도호부
1215	(고려 고종 2년)	계양도호부
1308	(고려 충렬왕 34년)	길주목
1310	(고려 충선왕 2년)	부평부
1413	(조선 태종 13년)	부평도호부로 환원
1895	(조선 고종 32년)	경기도 부평군
1914년 3월 1일		부천군 부내면으로 편입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에 편입
1968년 1월 1일		부평지역 인천시 북구에 속함
1988년 1월 1일		인천직할시 북구에서 서구가 분구
1989년 1월 1일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이 인천직할시 북구로 편입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 북구가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

문화시설과 부평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 도시의 기념품이 전시돼 있다.

'야외전시장'에는 19세기 경기도 지역 전통농가인 초가가 복원돼 있고 그네, 널뛰기 등이 설치돼 있어 도심 속에서 농촌을 잠시나마 느끼게 한다. 또한, 굴포천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 박물관공원은 3km정도의 가벼운 산책로로 지역주민들에게 애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박물관에 전시 중인 유물은 총 220점이며 수장고에는 1600점의 수장물을 보유하고 있다. 기증과 구입, 대여로 전시하고 있는 부평역사박물관은 테마에 따라 수시로 교체할 계획이다.

현재의 자리에서 시간을 거슬러 보는 부평역사박물관은 박제된 공간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에 녹여 미래로 갈 수 있는 참으로 진중한 곳이다. 🍀





웃음 찬란한 오월 축제

5월, 소중한 이들을 한번 더 생각하고 위하게 되는 때다. 우리시 곳곳에서는 5월을 더욱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제가 마련된다.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는 일상탈출의 장. 축제는 하릴없는 일상의 무게를 덜고 환한 웃음을 되찾아 줄 것이다. 더 불어 가족의 정을 돈독하게 하고, 이웃간의 벽을 허물어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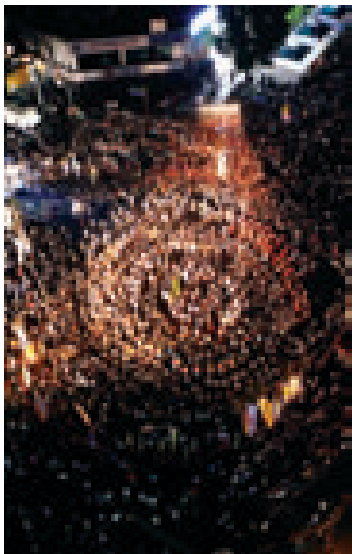
두레! 도시를 걷다 | 2007 부평풍물축제 |

전통은 현재를 이루는 자산이자 미래를 여는 자양분. 하지만 자칫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옛 문화를 좀더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축제가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예술축제로 성장하고 있는 ‘부평풍물축제’다.

부평은 1천년 이상 독자적인 농경문화를 간직해 온 곳으로 풍물이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특히 삼산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삼산두레농악은 대표적인 전통농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부평풍물대축제는 과거 풍요로웠던 부평의 모습을 재현하고 전통문화의 숨결을 느끼고자, 1997년 시작해 올해로 11회를 맞는 전통예술축제. 그 동안 옛 향취 가득한 전통 볼거리와 신명나는 사물놀이 가락으로, 인천시민은 물론 다른 지역의 사람과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두레! 도시를 걷다’를 주제로, 부평과 국내외 풍물이 한데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할 계획이다.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닷새 동안 펼쳐질 풍물의 향연 속으로 빠져보자.

■ 일시 : 5월 30일~6월 3일 ■ 장소 : 부평로, 부평구 일원 ■ 문의 : 부평구축제위원회(www.bpf.or.kr ☎ 509-7515~6)

날 짜	프 로 그 램	장 소
5월 30일(수)	부평고유제(10:00), 풍물길놀이, 기념비제막식, KBS 전국노래자랑(14:00)	신트리 공원
5월 31일(목)	축제 개막식, 제8회 동풍물경연 대회, 민속그네뛰기 대회, 부평골 민속놀이 한마당 등	
6월 1일(금)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전국풍물단체컨퍼런스 등	부평구청, 신트리 공원
6월 2일(토) 3일(일)	풍물마당 거리축제, 축하공연(국립국악관현악단, 김덕수 사물놀이패, 난타 퍼포먼스 세계 풍물단 등)	부평로(문화빌딩 앞 특설무대)
	놀이마당 부평삼산두레농악 시연, 전국 풍물 한마당(두레풍장, 남사당놀이, 정음농악 등)	부평로(문화사거리)
	참여마당 부평 난장 2007 프린지 축제, 퍼포먼스, 마임, B-boy 공연 등	부평로 서쪽방향롯데백화점 앞 도로 특설무대)
	체험마당 전통놀이와 풍물(상모들리기, 줄타기, 투호놀이 등)	축제행사장 체험마당
	대동마당 대규모 거리 축제, 풍물 퍼레이드, 부평 대동 줄다리기	부평대로(전국학생풍물경연장 ~소방서 앞 메인무대)



함께 느껴요! 화도진의 숨결을 | 제18회 화도진축제 |

화도진은 조선말기 서양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세워진 군영이자,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장소. 화도진축제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뜻 깊은 행사다. 축제 기간 내내 화도진 일대는 전통의 향기로 가득하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재현하는 어영대장 축성 행렬은 책으로만 접하던 역사를 피부로 느끼게 한다. 그 외에도 경서도민요, 가야금병창 등 전통예술 공연과 택견 등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열려 옛 문화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서게 한다. 부대행사도 다양하다. 파충류 전시회, 동구 옛 모습 사진전은 특별한 볼거리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화도진축제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화도진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 일시 : 5월 4일~6일 ■ 장소 : 화도진공원 일대
■ 문의 :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홍보과(www.icdonggu.go.kr ☎ 770-6090)

날 짜	프 로 그 램	장 소
5월 4일(금) 11:00~22:00	어영대장 축성 행렬 및 조약식 재현, 전통 공연(경서도민요, 가야금병창 등) 동구여성합창단 공연, 개막식 및 불꽃놀이, TV 공개방송	화도진 공원 내 폭포 광장
5월 5일(토) 11:00~22:00	경도대회, 태권도, 택견, 매직쇼, 재즈댄스, 어린이 인형극 ‘말팔랑이 삐삐’ 및 가족영화 상영	
5월 6일(일) 18:30~21:00	사물놀이, 구민노래자랑	
5월 4일(금)~6일(일) 11:00~18:00	무형문화재 및 품바 공연, 전통무예 시연	화도진 공원 내 동헌마당
	형틀, 곤장, 주리 및 감옥체험	내사 앞 마당
	전통놀이(투호, 윷놀이, 제기차기 등), 황해도 평산 소놀이 굿	내사 큰 마당
5월 4일(금) 11:00~22:00 5월 5일(토) 11:00~18:00	가훈 씨주기 행사, 염색공예, 매듭공예, 한지공예 등 체험	사랑채
	파충류 전시회, 동구 옛모습 사진전	행사장 일원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 세상 |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대축제 |

틀에 박힌 어린이 행사는 가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하공연과 체험행사로 가득한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대축제’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자. 제3회 어린이주간 및 제85회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대축제. 5월 5일을 ‘어린이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로 만들고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축제 한마당이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행사를 다양하게 펼치고 축하공연 등 각종 부대행사를 진행해,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운다. 여기에 어린이 관련 캠페인을 전개해 어린이를 아끼는 마음을 온 세상에 퍼트릴 것이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대축제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학경기장 북문광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

■ 일시 : 5월 5일(10:00~17:00), 6일(11:00~17:00) ■ 장소 : 문학경기장 북문광장 일대(일부 부대행사 및 연계행사는 별도 장소에서 추진)
■ 문의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연합회(http://www.inchild.org ☎ 882-7753)

시간	일자	5월 5일(토)			5월 6일(일)
10:00~10:30	식전행사(B-Boy 댄스공연, 관혁악단 연주 등)				
10:30~11:00		제85회 어린이날 기념식			
11:00~12:00	가족 에어로켓 발사 대회	제2회 인천시장배 가족 모험배만들기 대회	가족대항 단체 줄넘기 대회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 (11:00~12:00)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 (11:00~12:00)
12:00~13:30			가족 보물찾기 대회	중식	
13:30~14:30			어린이홀라후프 대회		
14:30~15:00		공연준비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 (14:30~15:30)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 (14:30~15:30)	
15:00~16:00					
16:00~17:00	어린이날 기념 축하공연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 (16:00~17:00)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 (16:00~17:00)	
상설행사 10:00~17:00	각종 체험, 부대 및 연계행사				



인연 맺기 10년 함께 높이 비상하다



베트남 북부 관문도시

하이퐁은 베트남 최초의 수출자유무역지대이자 대표적인 산업·항구도시다. 1874년 프랑스가 항만을 건설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현재 베트남 북부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베트남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대외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대하게 형성된 공업단지 내에는 세계 각국의 기업과 기관이 대거 진출해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하이퐁은 우리시와도 관계가 각별하다. 두 도시의 인연은 1997년 자매도시로 손을 잡으며 시작된다. 그 후 경제는 물론 정치,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우선 두 도시는 '하이퐁 해방기념일'과 '인천시민의 날'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기간간에 교류를 활발히 맺어 각 전문분야의 현황을 읽고 안목을 넓히고 있다.

사회경제 분야와 관련해, 인천의 기업을 비롯해 많은 한국기업이 하이퐁에 진출해 있다. LS-Vina 케이블사, GS건설, LG전자 등이 하이퐁에서 대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기업이다.

문화예술분야의 활동도 활발하다. 2001년 인천타악예술단이 베트남 문화정보부의 초청으로 하이퐁에서 공연했으며, 하이퐁예술단도 인천에서 열린 2006 아시아댄스페스티벌에 참가해 베트남의

문화예술을 선보였다. 올 7월에서 9월에는 인천시립박물관에서 '하이퐁의 역사와 문화유적'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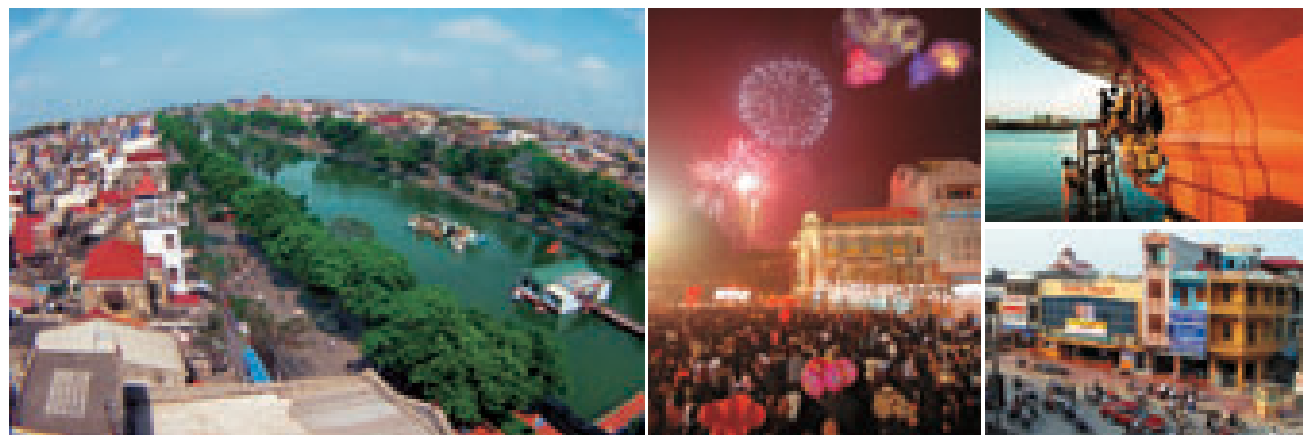
봉사활동 통한 교류

보건분야의 교류도 활발하다. 인천 길병원은 하이퐁 심장병 환자 두 명의 자선기금을 마련한 바 있으며, 결연 10주년을 맞아 하이퐁 심장병 어린이를 무료로 치료하는 행사를 계획 중이다. 인천치과의 사협회도 하이퐁 시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그 외 격년으로 6개월간 하이퐁시 공무원이 인천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분야에서도 관계를 끈끈히 유지하고 있다.

인천과 하이퐁이 형제의 연을 맺은 지 올해로 10년이 흘렀다. 우리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하이퐁 심장병 어린이를 무료로 치료하고 컴퓨터 및 물품을 기증하는 등의 행사를 계획 중이다. 하이퐁 문화 전시회는 하이퐁을 우리나라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퐁과 우리시는 경제발전의 허브역할을 하는 산업·항구도시라는 점에서 닮은 점이 많다. 앞으로도 자국을 넘어 세계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두 도시가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

자료제공 | 시 국제협력관실



호텔은 자기 집이 아니다

글 · 박영일 인천광역시 관광협회장



호텔 체크인(Check in)은 투숙절차를 밟은 것으로 숙박등록카드를 작성하고 객실을 배정받아 열쇠를 받는 것이다. 호텔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정오에서 오후 두시 경에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호텔이 객실요금은 체크아웃(Check out) 할 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스킵퍼(Skipper: 객실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몰래 호텔을 빠져나가는 고객)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Deposit)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체크아웃은 이용한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이때 객실열쇠를 반납한다. 열쇠를 잃어버리면 변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최근에는 마그네틱 카드열쇠를 사용하는 호텔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일회용이므로 잃어버려도 벌금은 없다.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에게 마그네틱 키를 선물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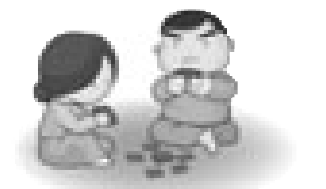
체크아웃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정오 사이로,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예의이며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객실의 종류는 싱글베드 룸, 더블베드 룸, 트윈베드 룸, 트리플베드 룸, 스위트 룸이 있다. 스위트 룸은 침실과 응접실이 분리된 형태로 일반적으로 특실을 말한다.

객실에서는 취사행위가 금지돼 있다. 방에 커피나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커피메이커를 비치해놓고 있는데 이것으로 컵라면 등을 끓여 먹어서는 안 된다. 🍵

호텔 꿀불건 백태

- 체크인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 객실로 동료를 끌어들여 카드나 화투를 친다.
- 샤워시 물이 밖으로 튀게 한다.
- 서비스를 받고 팁을 안준다.
- 잠옷차림으로 로비나 복도에 다닌다.
- 객실에서 취사행위를 한다.
- 기념 삼아 호텔 비품을 가져 간다.





- 행사기간 : 2009년 8월14일(금) ~ 11월1일(일) 80일간
- 장 소 : 인천광역시 전역 (주전시장 - 송도국제도시 3공구 일원)
- 행사성격 : 비즈니스와 Festival 기능을 포괄하는 종합 엑스포
- 관람목표 : 1,027만명(해외관람객 68만명 포함)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세계 향해 SHOW를 한다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인천과 한국의 역사·문화·관광 등을 소개, 홍보하고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도시개발을 앞당겨 동북아 허브도시, 세계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 마케팅 이벤트이다.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는 2009년 8월 14일부터 인천 송도국제도시 3공구 32만평 규모의 행사장에서 11월 1일까지 80일간 세계 각국 도시대표 등 1천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전시회와 학술회의, 다양한 이벤트 등으로 진행된다.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 중의 하나로 우리 인천의 도시 마케팅을 위한 가장 좋은 이벤트이다.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도시' 그 자체를 테마로 삼는다. 투자유치와 기업유치에 초점을 둔 도시마케팅으로 인류생존 공간으로서의 21세기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도시의 가장 진화된 모습인 U-City를 시범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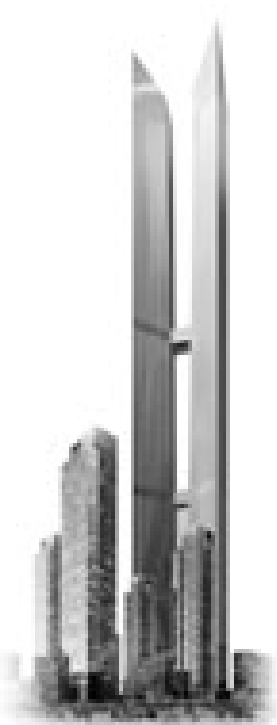
인천은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한 동북아의 국제 비즈니스와 IT, BT, R&D 허브로 도약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21세기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의 핵심축인 인천을 알린다. 또한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컨벤션센터, 인천대교, 151층 인천타워 등의 기반시설과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도심재창조사업(가정5거리 뉴타운, 송의구장 재개발 등) 등을 도시마케팅 할 것이다.

인천을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조성사업 1단계가 2008년 마무리된다. 또한 2008년에 북경올림픽, 2010년에 상해엑스포가 개최되는 것을 고려하여 '2009년 인천방문의 해' 행사와 병행하여 인천의 브랜드 제고 및 외래 관광객 창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09년을 개최시기로 정하였다.

엑스포를 통하여 세계의 도시,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전시관과 국제기구, 국제 학술회의 등 다양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미래 도시에 대한 전 세계인의 대안모색, 정보공유 그리고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정치계, 언론계, 예술계 등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미래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

주행사장	부대행사장Ⅰ	부대행사장Ⅱ
▶박람회의 주요 전시시설 배치 ▶메인 이벤트 개최	▶컨벤션, 비즈니스, 유비쿼터스 체험의 장, U-City 체험관, 아시아트레이드타워, 송도 컨벤시아	▶중앙공원을 활용한 휴게의 장



Incheon World City Expo





파란눈 까만피부 이젠 우리도 인천 사람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필리핀에서 귀화한 바네사 개이에타 씨와 남편 김진문 씨·무연이 가족

국제결혼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사회현상으로 대두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제결혼이 최근 들어 해마다 20% 이상씩 늘어나 2005년에는 전체 결혼

건수의 13.6%를 차지했고 국제결혼으로 태어나는 아기도 매해 4000명을 웃돌고 있다.

2007년 2월 현재 인천에는 5,700명이 이르는 결혼이민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3월 27일 결혼이민자 81명에게 귀화증서 수여식을 처음으로 가졌다. 법무부는 귀화증을 준 것은 물론 이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해 살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절차 안내, 한국인의 법률과 문화예절 등에 대한 특강도 가졌다.

귀화란 개인이 원래 속한 국적이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적을 획득해 그 국가의 국민이 되는 제도 내지 절차를 말한다. 일반귀화와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로 나뉘는데 일반귀화는 우리나라와 아무런 혈연적·지연적 결합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갖게 되는 것이다. 5년 이상 계속해 대한민

7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귀화자가 늘어나는 원인으로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의 혼인귀화 신청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친절한 한국인 그리고 나의 일, “사랑해요~”

이날 귀화증서를 받은 사람 중에는 필리핀인 바네사 개이에타(Vanessa Gayeta, 중구 운서동·26세)씨도 포함돼 있다. 바네사 씨는 남편 김진문(50세) 씨, 아들 무연(5세)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마흔 다섯이 될 때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맞선을 봤지만 인연을 만나지 못했던 김진문 씨는 필리핀에서 일하는 형님의 권유로 필리핀을 방문했다. 그때 한 처녀를 만나 첫눈에 반해 결혼까지 이르렀다. 그것이 2002년 5월의 일이고, 그 인연이 바로 바네사 씨다. 마닐라 인근의 대학에 다니던 바네사 씨는 시골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한국인 남성을 만나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7월에 다시 필리핀을 방문한 김 씨는 바네사 씨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필리핀 당국이 결혼허가를 내주지 않아 바네사 씨는 2003년 필리핀에서 아들 낳고 그해 10월에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김 씨는 다정다감한 남편으로 직장 동료들과 이웃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 바네사 씨가 자신의 직장 동료들과 자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덕분에 밝은 성격의 바네사 씨는 많은 친구, 언니가 생겨 이들과 더불어 여느 ‘한국아줌마’ 처럼 생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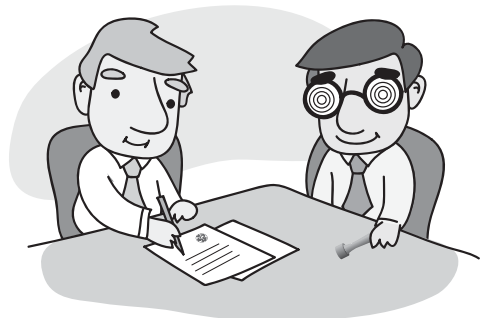
바네사 씨가 대학을 마치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온 것



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생계유지 능력이 있어야 하며 한국 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반면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는 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귀화가 가능하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화신청을 접수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게 된다. 호적신고 후에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면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한국인이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는 귀화 등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2001년에는 1,800여건에서 2005년에는 16,300여건으로 증가해



난 정말 모르고 찍었어요...

Q

계약서에 도장은 찍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인 줄 모르고 상대방의 설명만 믿고 찍은거예요. 알고 보니 상대방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고 저는 큰 손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죠?

A

위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부연 설명하자면, 질문자는 계약서에 뽀히 적혀 있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은 채(혹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설명만 듣고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즉, 자신이 차분하게 계약서를 잘 읽어 보았다면 상대방에게 속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못했던 것이고, 그 결과 사기를 당하거나 재산적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접하면, '상식적인' 사람들은 '너 참 어리석구나'라며 피해자에게 냉정한 시선을 던질 것이다. 하지만, 정작(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겪어보면 충분히 그러한 상황까지 갈 수 있고, 실제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특히, 사회경험이 적은 주부여러분들!)이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난감한 처지에 빠지곤 한다. 우선, 계약서를 보면(특히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의 경우)글자가 참 많다. 그리고 그 내용도 쉽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딱딱하고 생소하기 그지없는 단어들 투성이다. 한편, 앉은 자리에서 그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따지며 이해하고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느낌도 든다(상대방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계약서를 부여잡고 헤매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경우, 계약 상대방이 이미 몇 차례 얼굴을 익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설명을 믿고 따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계약서 작성이라는 것을 업무로 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 몇 번을 해봐도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결론을 밝히자면, 이러한 경우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이므로 누구를 탓할 수 없다. 상대방이 계약서 내용 자체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만한 것이 아닌 이상, 계약서상 명백히 드러나 있는 내용을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나는 몰랐다'고 하는 것

은 심히 중대한 과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계약서가 약관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 읽어주고(명시), 그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이는 약관의 내용(주로 경제적 강자로부터) 일반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 내용도 복잡하여, 일반인들이 일일이 그 내용을 숙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법적 배려이다(아주 쉬운 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계약서가 약관이 아닌 경우,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왜 알지도 못하는데 도장을 찍었느냐'는 법의 문책을 피하기 어렵다.

꼭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도, 아는 사람 사이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거나, 친한 친구의 소개를 받고 투자 유사한 재산처분행위를 하였는데 명확한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아마도 한국문화의 정서적 특성상 꼼꼼하게 '증거자료'로 남기자는 요구를 하면 인간관계에서 더 큰 손실(참 정나미 떨어지는 사람이다...라는)을 감수해야 한다는 측면과, 칼로 자른 듯 분명하게 계산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 등이 그러한 사태를 조장하는 것 아닐까 싶다. 정작 직업이 변호사인 필자도, 돈을 지불하고 나서 영수증을 받지 못해도 영수증을 달라고 따로 말 꺼내는 일이 쉽지 않았던 기억이다. 그러나 결국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의 과실 여하에 따라 책임이 좌우되는 것이므로, 내 밥그릇을 챙길 필요가 있다. 빈정대는 것은 순간이지만, 여기에서 무른 사람은 사람도 없고 재산도 잃는, 쓰디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결론은 계약서도 잘 읽고 차용증과 영수증도 잘 챙겨두자는 것이다. 🍷



글 · 이상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 861-5511)

이 마음에 걸렸던 김 씨는 몇 해 전 필리핀에 들어가 학기를 마칠 수 있게 배려해 주었다. 덕분에 친정에 70일간 머물며 대학졸업장을 손에 쥐고 한국으로 '금의환향' 할 수 있었다.

바네사 씨의 집은 작은 어학원이다. 하루에도 스무 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그녀가 열고 있는 영어교실에 찾아온다. 처음엔 눈 파랗고, 머리 노란 외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저하던 학부모님들도 아이를 좋아하는 바네사 씨가 아이들과 재밌게 수업하는 것을 본 후로는 학생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단다.

귀화증서를 받은 바네사 씨는 필리핀국적 포기도 신청해 놓은 상태라 '주민등록증' 발급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제 정정당한 한국인이 되어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영어 선생님으로서 알찬 삶을 살아갈 꿈을 키우고 있다.

할아버지의 나라, 한국이 좋아요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리안 엘레나 씨 가족

같은 날 귀화증서를 받은 리안 엘레나(32 · 부천시 고강동)씨는 결혼, 핏줄 두 가지 이유로 한국인이 된 경우다.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엘레나 씨는 교포 4세대. 그녀의 고조할아버지가 러시아로 갔다가 그곳에서 터를 닦고 일가를 이루셨다.

엘레나 씨는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대학의 한국어과 3학년에 다니고 있었던 1996년 한국방문 프로그램으로 처음 할아버지의 나라를 찾았다. 1998년 한국 초청 장학생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해 어학과정을 마친 그녀는 2001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시통역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원 졸업 후 청와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해외 어업관련 장관회의에서 러시아 어업위원장의 통역을 맡기도 하고, 이한동 국무총리 만찬에서 통역을 하기도 하는 등 '잘 나가는' 동시통역사로 활동했다. 대기업에 취업해 러시아에

서 파견근무를 하기도 했지만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이 그리웠단다.

한국에 '정착' 한 그녀는 친구의 결혼식에서 만난 남편과 2004년 결혼해 29개월 된 딸 가영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또 중앙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한러과에서 번역을 가르치고 프리랜서 통번역가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나고 자랐지만 완고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덕분에 '순수' 한국혈통을 가진 엘레나 씨는 외모에서도 한국인과 다를 바가 없어 결혼이나 사회생활에서도 큰 불편이 없다.

엘레나 씨는 키르기스스탄 국적포기와 함께 개명을 신청해 원래 할아버지의 성이었던 양씨 성을 찾고 '양화경'이라는 한국인으로 제2의 탄생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남편의 나라' 알기 돕는다



▲ 시정견학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온실을 둘러보고 있는 결혼이민자들

우리 인천에 많은 외국인이 먹고, 자고, 일하고,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인천사람이 되는 데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시 여성복지관은 '결혼이민자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특히 결혼을 통해 한국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글수업을 통해 '문맹'을 깨칠 수 있도록 돕고 한국음식 만들기, 컴퓨터 교육 등으로 이들이 인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가족 소모임을 열어 '가화만사성'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이후로 105명의 결혼이민자가 등록해 한국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12일 인천시청 장미홀은 우리시의 발전을 둘러보는 시정견학을 위해 모인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 가운데는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한글 수업을 받는 이들도 37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와 부평역사박물관을 둘러보며 우리시의 환경에 대한 노력과 부평을 비롯한 우리시의 역사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남편의 나라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문의 _ 결혼이민자지원센터 ☎ 440-6545

송도국제도시에 ‘잭 니클로스 골프장’



세계적인 골프 거장 ‘잭 니클로스’가 직접 설계를 담당하는 골프장이 송도국제도시 안에 세워진다.

지난 4월 24일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현장에서 잭 니클로스, 안상수 시장, 게일인터내셔널 스탠 게일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잭 니클로스 골프 클럽 코리아’ 명명식을 갖고

본격 개발에 착수했다. 잭 니클로스가 설계를 맡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골프장은 국내에서 송도국제도시가 처음이다.

전체 94만6천852㎡ 부지에 5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80만6천여㎡에 18홀 국제규격의 골프장이 건설되며, 골프장 한가운데에는 가구당 평균 700㎡ 대지규모의 유럽풍 골프빌라 151개동이 함께 들어선다. 또 고급 레스토랑, 바, 라운지, 회의실, 수영장, 스파시설과 스포츠웨어 및 장비 구입이 가능한 골프전문숍도 만들어진다.

행사에 참석한 잭 니클로스는 “송도국제도시 내 골프 클럽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동북아 경제 중심이 될 송도의 비전을 높이고 지원할 수 있게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세계 어느 코스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최고 수준으로 설계해 모든 골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은 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열리는 오는 200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개장에 맞춰 국제 선수들을 초청해 친선경기를 개최할 방침이다.

인천과학문화축제 개최

지난 4월 22일 과학의 달 4월을 맞아 인천 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인천과학문화축제2007’이 개최됐다. ‘인천과학문화축제2007’은 우리시의 지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과학영재교육원의 후원으로 인천 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축제에는 인천 시내 초·중·고 학생이 실력을 겨루는 과학창의력 경진대회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하노이탑 옮기기, 나뭇타위 쌓기, 과학퀴즈 대회 등이 진행됐다. 또 무선헬리콥터, 무선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의 시범과 무중력 체험, 열기구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가 펼쳐졌다.

문의 | 시 과학기술과 ☎ 440-3034

인천국제여자챌린저테니스대회 개최

5월 4일부터 6일까지 인천가좌시립테니스장에서 인천국제여자챌린저테니스대회를 개최한다. 인천광역시테니스협회가 주관하고 우리시와 대한테니스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20개국 1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해 열린 승부의 장을 펼친다. 국제 규모의 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해,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이자 스포츠 선진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국제여자챌린저테니스대회의 준결승전과 결승전은 5일과 6일에 열리며, 대회 관람료는 무료다. 한편, 대회기간 중 인천가좌시립테니스장에서 인천오픈휠체어테니스대회가 함께 열릴 계획이다.

문의 | 시 체육진흥과 ☎ 440-4103

모바일 민원전화 서비스 개시

우리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일반 및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국공통번호로 행정기관에 연결하는 ‘모바일 민원전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모바일 민원전화번호는 시·도는 1577-3333번, 군·구는 1577-2222번, 읍면동은 1577-1111번이다.

민원서류가 필요할 경우 일반 및 휴대전화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에 원스톱으로 연결돼 민원 신청 및 상담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모바일 민원전화 서비스로 기관별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한차원 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문의 | 시 정보화담당관실 ☎ 440-3015

인천바이오산업 국제심포지움 개최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송도경제자유구역 송도테크노파크 갯벌타워에서 인천바이오산업 혁신역량강화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이 개최됐다.

산업자원부가 후원하고 우리시와 송도테크노파크가 주최한 이 심포지움에는 정부, 지자체 및 바이오산업 관련 관계자 등을 비롯한 1천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심의약품 위탁생산시설 등 바이오산업 혁신기반구축에 관한 세미나와 기술혁신을 위한 주제 발표 등으로 진행됐으며, 바이오 분야 전문가의 대중강연회와 바이오 관련 기업체 전시회 등도 함께 열렸다.

이번 심포지움을 계기로 인천 바이오산업이 우수한 입지조건 등을 바탕으로 세계 바이오 석학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 시 과학기술과 ☎ 440-2815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로 불러주세요

이제 영종지구가 ‘영종하늘도시’(Yeongjong Sky City)로 불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영종지역 578만평 개발사업 지구가 국제도시, 친환경·생태도시, 미래지향도시임을 홍보할 수 있는 지구 명칭을 공모했다. 이에 따라 접수된 공모작 367건에 대해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중구청 지명위원, 인천대 영문과 교수, 인천지역 향토사학자로 구성된 명칭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차에 걸친 위원회를 연 결과, 3월 29일 최종 명칭심사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고 영종하늘도시가 1위로 선정됐다.

영종하늘도시 국문명은 한글만을 사용했으며 도시라는 친숙한 단어를 써, 영종지구가 인천국제공항의 배후지원도시이자 깨끗한 생태 도시임을 가장 잘 살려낸 명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송도국제도시 엑스포빌리지 조성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맞아 송도국제도시에 대규모 엑스포 마을이 조성된다.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주 행사장이 있는 송도국제도시에는 2009년 6월 1천337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준공될 예정이다. 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엑스포 행사 후 포스코건설 사원들의 거처로 활용될 계획이다. 세계도시엑스포의 뒤를 이어 각종 국제행사가 잇따르면서 국제 규모의 특급호텔도 계속 늘리기로 했다. 국제업무단지에는 지상 24층 규모에 객실이 322개인 컨벤션 호텔이 들어선다. 송도동 38일원에는 객실 570개를 갖춘 지상 23층 규모의 특급호텔이 세워진다. 송도동 10과 93일대에도 각각 200객실과 350객실을 갖춘 비즈니스호텔이 들어선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AMB 인천공항 항공화물센터 기공식



지난 4월 27일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AMB(AMB Property Corporation)의 인천공항 항공화물센터 기공식이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F1-4 블록에서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안상수 시장 박창규 시의회의장, 이재희 공항공사 사장, 마이클 에반스 AMB Property 부사장 등 150명이 참석했다.

이날 AMB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과 인접한 인천자유경제구역에 총면적 약 1만 2천평의 최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한국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다.

‘AMB 인천 공항 물류센터(AMB ICN Logistics Center)’는 세계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최첨단 물류센터로서, 다수의 물류회사 임대를 수용할 수 있는 설계상의 유연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MB 인천공항 항공화물센터의 건립으로 인천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물류허브로서 위상을 더욱 드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두바이 실사단 갯벌타워 방문 개발협의

지난 4월 2일부터 3일까지 척(Chuck Heath) 수석부사장을 비롯해 사미르(Samir Chaturvedi) 부사장, 시파르스(Siddharth Bafna) 부사장 등 두바이 자프자 인터내셔널(JAFZA International) 실무단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의 JAFZAI는 말레이시아, 모로코 등에 비즈니스파크를 개발하는 세계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경영회사다. JAFZAI측 실사단은 송도국제도시 내 갯벌타워를 방문해 사업 현황을 듣고 국제업무지구, 인천대교 등 주요개발현장을 둘러봤다. 그리고 영종물류복합단지 등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송도 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 11만평 면적의 상업·업무용지를 NSC(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맞춤형 전문자원봉사단 발대식



지난 4월 7일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맞춤형 전문자원봉사단’의 발대식이 인천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번 발대식은 안상수 시장, 박창규 시의회의장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안게임 유치 출정 환송 힘 모으기’ ‘자원봉사자 실천결의’, ‘자원봉사자 배지 달아주기’ 등의 행사로 진행됐다. 전문자원봉사단은 외국어, 재난재해, 의료간병 등 총 9개 분야로 구성된다. 경기(행사)보조, 선수단 영접 및 숙소안내 등 ‘맞춤형 자원봉사 코드제’를 도입해 인천을 찾은 외국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준 높은 행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시민이 복지 지원을 원하면 즉시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129긴급지원기동반 발대식과 129차량 시승식 및 카퍼레이드가 있었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665

초지대교~인천 도로개설공사 착공

우리는 지난 3월 28일 강화와 원주를 잇는 국지도 84호선(총길이 167.9km) 가운데 초지대교~인천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공사구간은 서구 금곡동 김포시계~서구 왕길동 구간(3.283km)의

왕복 4차선도로로, 공사착공 60개월 후인 2012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는 향후 국지도 84호선 가운데 나머지 구간인 서구 백석동 검단우회도로~경서동 경명로(총연장:2.82km)를 잇는 도로개설공사도 경인운하 폭이 결정되는 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 및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인천 서북권 및 경기도 김포에서 신공항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고 서울과 강화, 일산 등을 연결하는 물류 중심 도로로 활용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도로과 ☎ 440-3772

초등학생 교통카드 발급

우리시에서는 지난 3월 27일부터 초등학교 시내버스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통카드의 사용대상은 만6세에서 만12세로, 교통카드 판매소에서 카드를 구입 후 (주)이비 홈페이지에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학년 등 기본정보를 등록한 후 사용하면 된다. 초등학교 교통카드는 6,000원으로 4월 1일부터 인천시내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인천지하철, 수도권전철, 서울시내버스는 한국스마트의 호환개발 작업이 끝나는 5월 중순에 사용할 수 있다. 또 만13세가 되면 청소년용으로 자동전환된다.

문의 | 시 대중교통과 ☎ 440-3885

여권접수 인터넷예약 서비스 개시

우리는 지난 4월 16일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방문 일시를 예약하는 ‘여권접수 인터넷예약 서비스’를 개시했다. 여권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대행기관에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직접 방문해 여권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종합민원실에 인터넷예약 전용 접수창구 2개(7번, 8번 창구)를 운영한다. 예약에 따른 여권 접수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예약기간은 최대 1개월이다.

인터넷 예약시스템은 우리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나 http://passport.mofat.go.kr에 접속하거나 외교통상부와 각 여권대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예약 서비스 실행으로 대행기관을 방문해 기다리지 않아도 돼 앞으로 여권 접수 과정이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시 자치행정과 ☎ 440-2478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 이사회



지난 4월 11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 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장애인 체육단체 관계자,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이사회에서 안상수 시장은 당연직인 회장으로 김동기 행정부시장은 부회장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감사 2명을 포함해 24명의 임원 중 장애인 12명이 이사로 확정돼,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 체육정책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의 | 시 체육진흥과 ☎ 440-4074

제5회 인천환경기술전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인천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장(INBEX)에서 인천환경기술전(Incheon Environmental Technology Fair 2007)이 개최됐다.

우리가 주최하고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인천일보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100여개의 기업·기관·단체가 참여해 우수한 환경기술과 환경친화제품을 선보였다. 그리고 전시 외에 2007 하천환경 학술심포지엄, 인천하천탐방, 환경신기술발표회, 환경신기술상 선정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환경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문의 | 시 환경보전과 ☎ 440-3513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축제

지난 4월 2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축제’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사)인천광역시재활협회 주최로 열렸으며, 안상수 시장과 박창규 시의회의장, 나근형 시교육감 등 각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모범장애인과 유공자, 모범학생 등 60명에게 시장, 시의회의장, 교육감, 협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2부 한마음축제 행사에서는 공연과 행운권 추첨 등 흥겨운 행사가 펼쳐졌다. 더불어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시설·단체에서도 시설장애인 및 재가장애인과 함께하는 축하 행사를 마련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였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665

이웃사랑 성금 전달 및 유공자 포상식

지난 4월 23일 인천상공회의소 1층 강당에서 ‘2007년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 및 유공자 포상식’이 열렸다.

한미 FTA 추진실무대책위원회



우리는 지난 4월 3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한미 FTA 추진실무대책위원회’를 열고, FTA 타결이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 및 장·단기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는 한미 FTA가 자동차 같은 인천의 주력 수출산업을 확대시키는 등 경제의 잠재 성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화학과 정밀기기 등 핵심부품과 소재 분야의 수입이 증대돼 현재의 무역 특화구조가 심화되는 등 인천경제에 다소 해가 될 것을 우려했다. 그리고 경제주체들이 한미 FTA에 적절히 대응해 기술력과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인천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는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2차 제조업이 발달한 인천 지역의 산업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미 FTA 협상 체결이 2009년 도시엑스포 개최와 2014 아시안게임 유치로 이어져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시상식에는 안상수 인천시장, 박창규 시의회의장, 나근형 시교육감, 사회복지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수상자는 대우자동차판매, 풍산 부평공장(이상 단체)과 최영순 씨, 덕환스님(이상 개인)으로, 시상식은 수상자 시장표창 및 격



려사와 함께 성금 배분심사 경과보고 및 배분결정서 전달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상수 인천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유치가 경제·사회 전반에 나타날 파급효과를 구체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여러 민간복지단체와 힘을 모아 더 큰 사랑과 희망을 꿈꾸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올해 78억1000만원을 모금 목표로 잡았으며, 현재 12억9500만원을 모금해 달성을 17%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모금 실적은 72억300만원이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924

지방재정제도 시행에 따른 설명회

지난 4월 20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 본부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제도와 2008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와 관련,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예산제도란 기존에는 예산을 품목별로 통계와 투입 중심으로 편성했다면, 이제는 자율과 책임기반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배정, 집행, 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또 복식부기제도란, 현재의 예산결산제도가 단식부기 방식으로 단순히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상황 및 자산관리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회계를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로 처리해 지방재정의 운영내역을 기업형 회계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행정서비스 비용정보 산출,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함양 등 지방행정 운용시스템의 개혁, 또 재정의 책임

성·투명성·신뢰성 제고와 지방재정에 대한 참여 증대, 외부통제 강화 등 지역주민에 대한 효과, 그리고 국제수준의 회계기준 운영 및 재정통계정보 산출 및 투명성지수 향상, 국가경쟁력 향상 등 국제적 위상 제고 등 국제적 신인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공항신도시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간담회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 11일 인천시청 소상황실에서 인천국제공항신도시 내 보육시설 등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경수 부의장, 김성숙·이명숙·정종섭 의원을 비롯해 인천시, 중구,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항신도시 내에 6천~1만평 규모의 부지에 영유아 보육시설 및 실버케어센터 등의 노유자시설, 문화시설, 사회체육시설, 청소년시설, 테마공원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공항 관련 종사자와 신도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 감사패 전달



인천광역시의회 박창규 의장은 지난 4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주웅)와 경기도의회(의장 양태홍)를 각각 방문해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 확정에 따른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4월 9일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들은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해 ‘2014 아시안게임 유치후원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박창규 의장은 협정서 체결 이래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가 확정되기까지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의장과 의원들에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3명과 270만 인천시민의 마음이 담긴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그간의 성원에 보답했다.

인천 YMCA선정 우수 시의원

인천시의회 김성숙·이근학·이명숙·이재호·정종섭 의원이 인천YMCA가 뽑은 우수 시의원으로 선정됐다. 인천YMCA는 ‘2006년도 회의록 분석, 출석 현황, 의원발의 조례수, 현장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우수 시의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발판 이론 ‘OCA 회원국 순회방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3명 전원은, 총11회에 걸쳐 OCA회원국을 방문하며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호소하고 지원을 약속 받았으며, 이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원동력이 되었다. OCA회원국 방문 주요일정으로 먼저, 지난 2월 23일에서 25일 태국을 방문해 방콕시의장 일행, 태국 NOC부사무총장, 로이엣도도지사 등과의 면담을 통해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인천을 지지할 것을 약속 받았다. 2월 25일에서 28일은 아시안게임 개최 경쟁도시인 인도 델리를 방문. 주 인도대사관 송봉헌 공사와 MBC 유재열 주재원과의 면담을 통해 인도의 아시안게임 유치활동 상황, 체육시설 건립계획, 여론 및 인도의 비전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했다. 4월 4일에서 7일에는 카자흐스탄 NOC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두바이 건설현장을 견학하는 등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4월 5일부터 13일까지는 태국과 라오스에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자 총력을 다했다. 태국에서는 방콕시의회의 장관을 비롯해 NOC사무총장, 교육부차관보, 태국양궁협회장 등에게 인천아시안게임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라오스에서는 라오스대사관과 부총리와 접견하고 라오스 NOC에 방문해 인천의 지지를 약속 받았다.

자료제공 | 인천광역시의회 홍보팀 ☎ 440-6052



Congratulatory Message

“시민의 성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박창규(인천광역시의회 의장)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270만 인천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계기로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인정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의 쾌거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박창규)의 노고와 있기에 가능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10월 23일 제153회 임시회에서 ‘2014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같은 해 12월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2014 아시아경기대회 인천유치를 위한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며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의 포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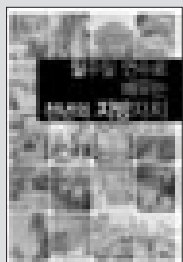
지난 2월과 3월에는 쿠웨이트 등 7개국 11명의 ‘OCA 회원국 주재 재외공관장 초청 간담회’와 인도 등 22개국 22명의 ‘OCA 회원국 주요인론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인천지지를 호소했다. 4월 9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주웅), 경기도의회(의장 양태홍)와 함께 수도권 3개 시·도의회가 협력지원을 공고히 해 아시안게임의 인천유치를 확정 짓고자 ‘2014

인천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더불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3명 전원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목표로 유치 경쟁국인 인도와 OCA의장국 쿠웨이트 등 OCA회원국을 방문해 공·사적인 친분관계를 활용해 각계의 인사들을 만나 ‘Vision 2014’를 홍보했으며, 각국의 NOC사무총장과 인천지지 호소 서한문을 교환하는 등 아시안게임을 인천에서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의 유치활동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박창규 의장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정당대표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시민 등 모든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지지 덕으로 2014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열리게 되었다”며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의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더불어 “인천이 2014 아시안게임 개최도시로 결정된 만큼, 그 동안 유치노력과 열정을 이어 대회준비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라며 “2014 아시안게임의 인천유치를 전국민과 같이 축하하며, 270만 인천시민에게 무한한 영광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축하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일주일 연수로 배우는 천년의 지방자치



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 함영이)가 독일 한스 자이텔 재단의 후원으로 실시한 제4기 독일연수단 연수기를 책으로 엮어냈다. <일주일 연수로 배우는 천년의 지방자치>는 단순히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의 해외연수보고서가 아니다. 독일 바이에른에서 실현하는 나눔의 정치를 생생하게 전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앞날에 희망을 비추는 의미 깊은 책이다. 책은 독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바이에른의 사회복지시설·정책, 여성정책, 지방재정조정제도 등 독일의 지방자치 상황을 꼼꼼하게 짚어준다. 그렇게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민의 삶에 가까운 지방자치, 정책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꿈꾸게 한다.

함영이(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성숙(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외 8인 지음
한국여성정치연구서 기획 | 해피스토리 펴냄 | 1만원

광무(狂舞)를 추고 간 시인의 새는 어디에

— 최병구의 월미도

글 · 김학균 시인

비온 뒤의 하늘은 가을이라서 그런지 더 맑다. 장화를 신지 않고 걷기에는 힘든 학익동 구치소 가는 길, 새로이 길을 내느라 황토 흙이 발에 들러붙어 천근만근이다. 불미스럽게 연루된 K중고교의 서무과 도난사건으로 학익동 구치소, 속칭 붉은 돌담집에 잠시 들어앉게 된 최병구 시인이 출소하던 날의 고통.

동구 재향군인회 황 회장과 손설향 그리고 선생의 부인 손 여사와 필자 이렇게 네 사람이 간단한 출소식(두부 먹는 일)을 마치고 들른 곳은 학익동 도살장 인근 대포집. 술은 이럴 때 참으로 안성맞춤이다. 이때부터 최병구 시인의 소

문은 ‘돌았어 돌았나봐’로 인천이 술렁거렸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의 입방아였지 정작 먼저 보낸 아들(대혁)을 잊지 못한 몸부림인 것을 알거나 했을까.

송학동 이당기념관. 여름을 보낸 지는 깜박할 사이이건만 서늘했다. 선생

의 49제 몇몇 지인들끼리 마련한

추모제라 해야 할 것 같

다. 딸 숙희, 외손

자 등의 가족과

손설향, 고촌(화가, 작고), 김윤식(현 문협회장) 그리고 필자 등 30여명이 모였다. 사람들은 다 어디갔을까. 살아있을 때 말 많던 그 사람들 말이다. 참아도 참아도 흘러내린 눈물, 아마 그때 참석한 사람들의 눈물이 장강을 이뤘다고 표현한다면 믿을 사람 있을까. 참으로 슬픔의 두께가 엄청났었다. 고인이 된 손설향 시인은 열흘을 몸살앓이 하며 최병구 시인을 잃은 슬픔을 토해냈다.

24년생, 호는 성문(聲文). 경기도 용인에서 출생한 최 시인은 해방되었을 쯤에 인천으로 이주해 인천시청에 근무했다. 동인회(초원)활동을 시작으로 문학에 입문, 51년 이후 본격적으로 글을 써 57년 자유문학에 ‘시인과 여인’을 발표, 1회 추천을 받으며 늦깎이 시인으로 데뷔했다. 그 이듬해 다시 동일 문예지에 ‘나무’ 등을 내놓고 명실상부한 시인으로서의 길을 재촉하였다. 그 전에 이미 ‘인천문학’의 동인지지를 주간하며 문학의 토양을 다진 인물로 언론계에 종사하며 종횡무진 인천을 위한 인천 문사로서 몫을 다한 시인이었다.

한국일보 문화부장, 전시에는 대한신문 특파원, 시사통신, 경기연합, 경인, 경기일보 논설위원 등을 지낸 언론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문인의 길 또한 소홀함이 없었다. 59년 4월 15일 ‘님의 말씀’ 등 주옥같은 시 31편을 수

록한 「원죄근처」(법문각, 57판 98쪽)를 상재, 자연을 인간상황으로 치환하려는 깊은 심미안을 표출하였다.

‘인천문학’, ‘중앙문학’ 등을 발간해 문학의 폭을 넓혀 갔다. 외롭고 불우한 한 사람으로서 무늬만 시인인 사람과 달리 순정의 시인으로서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 고통의 세월을 산 시인이었지만 그가 심은 묘목은 오늘날 인천문학의 숲을 이루게 했던 것이다.

인천문협회장, 시분과 위원장을 지내며 경기도 문화상(문학부분, 66년)을 수상하기도 한 시인은 도원동 산마루 판자집에서 간암으로 58세에 상주없이 재로 갔다. 「버리고 간 노래」(유고시집, 81년 출간)처럼….



월 미 도

미친년 산발(散髮) 같이 살아온 생활
해 저문 항구에는
항구라는 곳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남아서
고별과 항해와 정박을 생각한다.

평생을 바다와 월미도를 바라보며
그 한숨을 해풍에 날리며 살아온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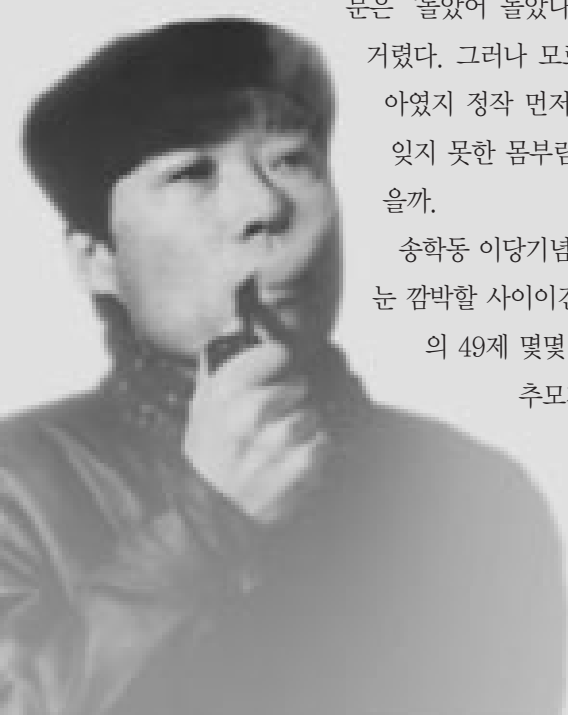
안정된 생활의 영일(寧日) 없어도
소년들의 해변을 즐겨워 뛰며 자랐다.
청관거리 늙은 중국인은 한가로이
룻구멍을 쑤시고

생선 양동이를 머리에 인 여인들은
낙엽지는 항구의 거리를 총총히 달린다.
제 고장이면서 제 고장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월미도가 보이는 만국공원
지친사내는 석상같이
술을 마신다.

불신과 배신과 도주 그런 것들이
일상같은 파도의 소리 기적소리

정말 더럽기만한 취안에는
그 옛날 사슴과 암전한 토끼와 곰과
순진한 동물들이 살던
월미도 그 동물원도 이제는 없다.

그의 시 ‘황혼에 떠나는 영구차’에서 노래한 것처럼, 죽음의 예언처럼, 산야에 뿌려져 조류들의 혀끝에 쏘여 노래로 들리고 있다. 새들의 노래로. 순교자적인 시인 최병구는. 🐦



생명에 대한 감탄과 경탄 사이에서

글 · 김성중 인천대학교 교수 ·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통증이 너무 심하다. 참기 어려워 금방이라도 고향칠 것만 같다. 첫 번째 통증이다. 조금 있으니 그런대로 참을 만하다. 이때 남편의 모습이 떠오른다. 순간 약이 오르며 은근히 화가 난다. '나쁜 놈! 늑대! 도둑! 자기 자식 나아 주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야, 두고 보라지...' 응석어린

낯은 소리로 투정해보았다.

바로 이때 또 한 번의 통증이 시작된다.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이다. 두 번째 통증이다. 역시 예상대로 조금 참으니 또 견딜 만하다. 이때 손주를 초조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모습이 떠오른다. 둘째까지 손녀를 보시고는 무척이나 실망하셨던 모습을 생각하니 고통스런 통증이라도 견딜 만하다. 아니 견디어야 한다. '이번만은 아들이어야 하는데...' 하며 이를 악물어 본다.

이때 마지막이 될 통증이 시작된다. 너무 아프다. 어찌되든 이시간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다른 생각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의사의 지시 대로 얼굴에 홍점이 생기도록 힘주기를 몇 번인가 되풀이 하는데 순간 양수가 터지다가 싶더니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안도의 숨과 함께 '그래,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생각하며 생명에 대한 벅찬 감동을 고스란히 담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위 이야기는 너무나 평범한 임신부의 이야기 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함이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특별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그곳에 사는 임신부들은 임신의 기쁨도 잠시일 뿐 뱃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공포감도 10달 내내 품고 살아야 한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마을 사람들

의 평균 수명이 59세로 줄었으며, 신생아가 태어나면 10명 중 2명은 기형아로 태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해에는 왼쪽 팔목이 없는 기형아가 8명이나 줄줄이 태어났다.

급기야 정부는 서둘러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 전문가들의 분석 끝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마을 사람들의 무지가 부른 '환경재앙'이 원인이었다. 수많은 양의 산업폐기물을 여러 해 동안 땅에 버리거나 묻은 결과 그 땅은 생명력을 잃고 죽음을 부르는 땅으로 변한 것이었다. 그래서 땅을 오염시킨 사람들은 그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이다. 어른들의 무지와 나태함 때문에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이 고통을 떠안고 태어나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 마을의 임신부는 통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떠오르는 생각은 오직 한 가지 일 것이다. 그저 내 아이가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이들에게 있어 응석을 부릴 남편이나 초조하게 아들을 기다릴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의 사치로 느껴질 정도이다. 모든 생명은 감탄의 대상이다. 하지만 우리가 환경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훼손할 때 그 생명은 경탄의 대상으로 바뀌고 만다.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하자! 🍃

내 가슴에 새긴 한구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고린도전서 10:25-26)

신약성서에 있는 사도바울의 가르침이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사람을 위해 신께서 창조하신 것이므로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취하면 된다는 말이다. 소를 잡아 육식을 한다고 해서 살생의 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포도주를 마신다고 죄인이라 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음식으로 혹은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기 위하여 먹고 마신다면, 만 들어 주신 이에게 감사하며 먹고 마신다면 무슨 문제가 될까? 소심하여 죄인 되지 말고, 철없이 오버하지 말고 사도바울에게 물어보자!

정말 예쁜 우리 누나들

아빠 사진첩에서 찾은 누나들 사진입니다. 첫째 누나는 벌써 시집을 갔는데 참 오래된 사진이네요. 저 태어나기 전 사진인데 벌써 시간이 이만큼 되다니... 저의 또 다른 세상을 만난 듯하네요. 우리 누나들 정말 예쁘지 않나요?

김기두 | 서구 석남동



앗! 빠지면 안돼

20년 넘게 우리아빠가 고이고이 간직해둔 군생활의 모습이에요. 서로가 잡아주고 당겨주는 아름다운 우정, 이때가 좋으셨대요. 저도 이 다음에 멋진 우정 만들 거예요. 파이팅!

박재학 | 남구 주안4동

김치~찰칵



애벌레학교 기행에서

미꾸라지 잡는 시간을 기다리며 갔던 곳. 쌀쌀한 날씨라 냇가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씀에 시무룩했지만 결국엔 신나게 미꾸라지를 잡고 흙 범벅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함께 한 엄마들은 씻기라 빨래하라 분주한데 아이들은 마냥 신난 하루였습니다.

아름드리 | 부평구 일신동

문학에서 1971.5.10

엄마사진첩을 뒤적다가 발견한 사진입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때 문학산으로 소풍을 자주 갔는데 엄마도 그러셨나봐요! 사진 왼쪽 아래를 보면 '문학에서 1971. 5. 10'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굿모닝인천>을 받아두고 엄마 찾기 놀이를 해 볼까요~~!

진두린 | 계양구 효성동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이렇게 손을 흔들고 맹세한 그 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아, 우리 그때 한 약속처럼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여 살자꾸나!'

박은솔 | 남구 주안4동

앗 졸려

몇 년 전 봄비가 내리는 날 유치원에서 체험학습을 갔어요.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데 왜 이리 졸리는지 참을 수가 없기에 졸면서 사진을 찰칵. 이것도 나에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단비 | 서구 석남동

전철은 내꺼야

옛날 친척 형들하고 처음으로 전철을 탄 날. 전철이 왜 그리도 신기하던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전철 한 대 살 거라고 큰소리쳤었는데... 어느덧 결혼도 하고 어엿한 직장에 다니는 나이가 돼버렸다. 이제 전철타는 게 일상인 것일...

조영준 | 남구 학익동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청량산에 오르라 삶에 여백을 드리워 드리리다

“나는 내가 무겁다”. 하릴없는 입상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산사(山寺)로 향하자. 굳이 불자(佛子)가 아니어도 좋다. 사찰은 너그러우니. 마음의 위안을 찾는 사람은 누구라도 기꺼이 품에 안는다. 삶에 여백을 드리울 흥륜사(興輪寺)로 떠나는 마음의 여행.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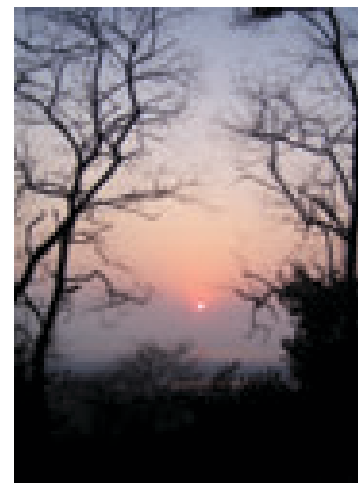
백팔계단으로 오르다

등하불명(燈下不明)이라 했던가. 어찌하여 흥륜사(興輪寺)를 잊고 살았을까. 흥륜사는 청량산 중턱에 자리한 사찰. 도심에서 고작 몇 십분 차로 왔을 뿐인데, 여기부터는 새로운 세상이다. 속계와 선계를 구분 짓는 것은 백팔계단. 급하게 오를 필요 없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발걸음을 내딛자. 그렇게 하늘과 가까워질수록 사라지는 것은 번뇌요, 채워지는 것은 평안이다. 그렇게 계단 위에 다다르니 흥륜사의 풍경이 여유롭게 펼쳐진다. 대웅전이 중심에서 사찰을 너그럽게 아우르고, 세상을 굽어보는 금빛 불상은 햇살에 젖어 더 깊게 빛난다. 바람결 따라 청아하게 울리는 풍경소리가 귓가를 지나 마음에 다다른다.

자연을 품다

흥륜사의 역사는 6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려 우왕 2년 공민왕의 왕사인 나옹화상은 청량산의 맑디맑은 기운에 이끌려 사찰을 창건했다. 그때 지어진 절의 이름이 청량사. 이는 청량산의 어원이 되기도 했다.

과연, 나옹스님이 감탄하였을 법한 빼어난 풍경이다. 사찰 어디서든 아래를 굽어보면 서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바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송도국제도시와 영종지구를 잇는 인천대교가 태동하는 모습은 또 다른 장관이다. 마음속에서 다리는 벌써 바다를 가로질러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흥륜사에서 바라보는 인천의 풍경은 특히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고 하니, 언젠가 ‘해질 무렵 다시 찾으리라’ 다짐해 본다. 흥륜사 뒤편에는 산책로가 있다. 산이 높지 않고 계단이 나 있어 가볍게 거닐기 좋다. 정상까지 오르는 데 몇 십 분이면 충분하다. 소나무 숲도 푸르게 드리워져 있다. 하늘이 안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자연을 누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사찰을 내려오는 길, 전통차집에 들러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좋다. 대추, 솔잎, 석류 등 몸에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 다디달다. 찻값은 4천원 정도로 몸과 마음을 넉넉히 채우는 것을 생각하면 그닥 아깝지 않다.

삶에 여백을 그리다

자연과 호흡하는 도심 속 쉼터. 물론 이것이 흥륜사의 다는 아니다. 흥륜사는 기나긴 역사가 살아 숨쉬는 사찰로 눈과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많다. 사찰 내에는 석가모니의 최초 설법을 기록한 패엽경(貝葉經)이 천삼백년 시간을 거슬러 전시대 있다. 통일신라의 관음보살상, 삼존불감, 탕화, 지방문화재 59호인 자치통감 강목과 58호인 대장일람 등 성보(聖寶) 500여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눈앞에 펼쳐진다.

흥륜사는 이러한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불교박물관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산사 음악회와 템플스테이 등을 열어 사람들의 마음을 절로 이끌고 있다. 불자든 불자가 아니든 사람이든 자연이든. 세상 무엇이든 감싸 안는 너그러움, 바로 흥륜사의 마음인 것이다.

집으로 향하는 길. 눈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푸르고 푸르게 빛난다. 여행이나 휴식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니다. 그저 욕심없이 발길이 이끄는 대로 흥륜사로 향하라. 그렇게 마음에 여유를 찾고 삶에 여백을 그려 넣으시길. 🍃

가는 길

대중교통 이용시, 인천지하철 1호선 동춘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면 요금 2, 3천원 정도면 흥륜사에 도착한다. 시내버스 6번을 이용할 때는 송도유원지 앞이나 영락원 앞에서 내려 걸으면 10여분 정도 걸린다.

흥륜사 ☎832-1133, 1134

평안에 이르길 바라는 마음

흥륜사 정법륜스님



흥륜사는 긴 세월만큼이나 굴곡의 역사를 안고 있다. 620여년 전 고려 공민왕 때 창건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없어졌으며, 1932년에는 인명사라 불리는 작은 암자로 다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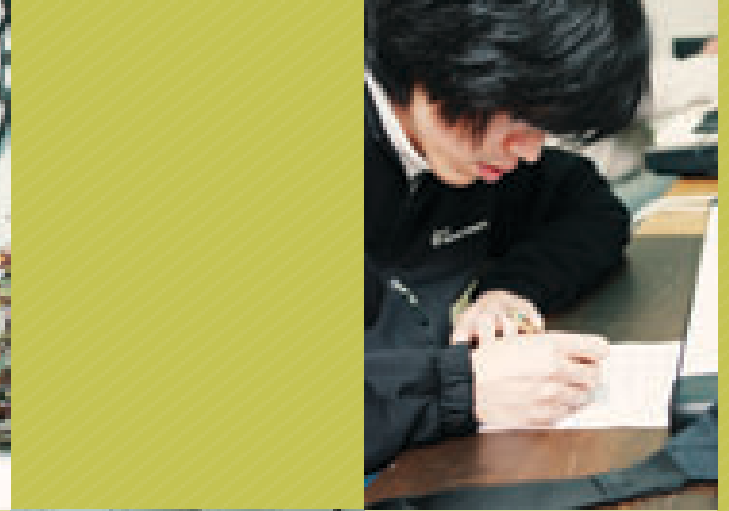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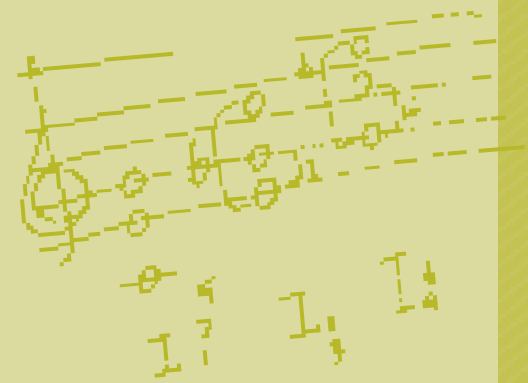
사찰이 흥륜사로 명해지고 오늘날의 웅성한 모습을 갖춘 것은, 1966년 현 주지인 정법륜화상이 절에 오면서부터다. 당시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진 절을 법륜스님이 손수 문을 바르고 기왓장을 올리며 다시 일으켜 세웠다. 자연을 사랑하여 4만여 신도와 함께

나무를 심고 산을 가꾸는 데도 앞장섰다. 자연이 본디모습 그대로 온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죽은 나무를 살리고 얹힌 나무는 풀어주었다. 그 마음이 깊어서 일까, 이 곳에서는 들이마시는 숨조차 청량하다 못해 투명하다. 법륜스님은 이 평안함을 세상 사람에게 널리 전하고 싶다.

“흥륜사는 자연을 누리고 본연의 나를 찾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삶의 휴식처요, 믿음의 귀의처입니다. 흥륜사에는 담이 없으니, 부처님을 모르는 분이 오셔도 좋습니다. 이 곳에서 깨달음을 얻어 평안한 삶의 길에 이르십시오.”

큰 스님의 큰 말씀이, 처마끝 풍경소리마냥 귓가에 맑게 울려 퍼진다.

창작의 열정이 뜨겁다 '끝장' 끝없이 이어지는 장단



봄 햇빛은 오늘도 여기저기서 꽃망울을 터트리고, 꽃들의 잔칫상을 받고 세상은 감동의 물결로 출렁인다. 이 아름다운 봄날의 향기를 자신만의 표현방법으로 재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마음도 손길도 바빠진다.

글 · 신은주 인화여고 국어교사 | 사진 · 이지학 자유사진가

간 석오거리부근에 위치한 덕분에 만월산을 가까이서 마주보고 있는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를 찾던 날도 벚꽃의 자태는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밝게 해 주었다.

'끝장(끝없이 이어지는 장단)'은 작곡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순수음악 창작동아리이다. 모두 직장생활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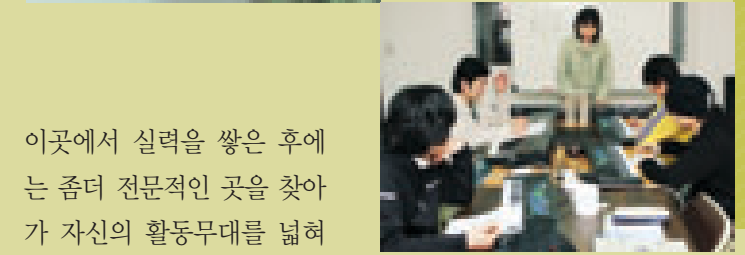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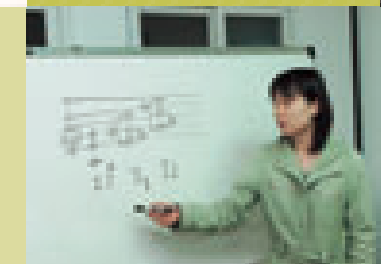
면서,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은 아마추어들이 2003년에 뜻을 모아 동아리를 만들어 현재 회원은 5명이다.

그들은 순수 창작, 편곡을 하며 다양한 레퍼토리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음악세계를 넓혀가고 있다. 연령층이 20대에서 30대에 몰려 있는 이 젊은 음악인들은 매주 목요일이

면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에 모여 창작의 열정을 피워 올린다. 각자 추구하는 음악 세계가 달라 영화음악, 락 밴드, 노래 등 구사하는 음악도 다양하다.

창작음악의 결과는 악보로 남기 때문에 이것을 실험해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곡을 선보이고 있다. 정기 발표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면서도 동아리 발표회를 1년에 네 번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창작곡을 준비하고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그들은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물하고 있다.

회장 최수원 씨는 창작곡을 선보일 때, 다양한 악기가 동원되는 밴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실험을 해보고 있다. 정희영 씨는 자신이 그동안 쓴 곡들을 모아서 창작발표공연을 해보는 꿈을 키우고 있다. 그는 '끝장'의 모임 취지를 "일반인이 언제나 작곡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가기 전까지의 준비과정"이라고 들려주었다. 회원들은



이곳에서 실력을 쌓은 후에는 좀더 전문적인 곳을 찾아가 자신의 활동무대를 넓혀간다.

6월 30일, 인천대에서 열리는 '빠까뽀' 야외축제 참가를 위해 그들은 바빠졌지만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어려움도 그들의 순수한 열정 앞에는 고개가 숙여진다. 그들처럼 음악이 좋아서 모인 순수한 사람들이 우리 음악의 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있다는 생각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다. 🍷

지역 문화예술의 밑알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장단' 이외에도 동아리 모임이 7개나 있다. 지난 10년간 전문노래패 '아름다운 청년'을 탄생시킨 노래 동아리를 비롯하여 사진, 통기타, 풍물, 밴드, 연극, 북아트 등 다양한 문화매체를 매개로 현재 100여명의 동아리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아트홀 '소풍'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인천시민들의 기금이 바탕이 되어 탄생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연극, 전시, 콘서트, 발표회 등 소규모 공연과 행사를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442-8017)는 동아리에 속해서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 문의_☎ 442-8017

막上막下 이달의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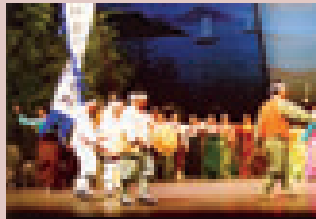
춤마당·흥마당 무용을 통한 교육프로젝트 눈으로 듣는 이야기-동화 속으로II



시립무용단이 아쉽게 기획하고 있는 <무용교육 프로젝트>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되어 「동화 속으로」, 「문학 속으로」를 선보인 바 있다. 지난 2004년 초연, 2005년 앵글공연을 거친 「동화 속으로」에 대한 성원에 힘입어 새로이 만든 무용극으로, 예쁜 그림과 아름다운 노래로 널리 알려진 <신데렐라>,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이야기를

무용극으로 재탄생시켰다.
일시 _ 5월 17일(목)~18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_ 남구학산소극장
티켓 _ 전석 7,000원 문의 _ 인천시립무용단 ☎ 438-7774

서도소리와 우리 춤의 세계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흥겨운 서도선소리 타령, 경서도 민요, 배치기 공연 그리고 한국 무용(호남 살풀이, 장구춤, 황진이 검무) 등 서해바다 어민들의 삶의 현상이 흥겨운 농악 가락과 더불어 재연되는 맛이 있고 흥이 있는 공연이다.

일시 _ 5월 19일(토) 오후2시 **장소** _ 한중문화관 공연장
티켓 _ 무료 문의 _ ☎ 760-7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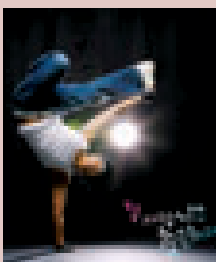
연극 라이어



완벽한 희극성과 빈틈없이 잘 짜여진 구성, 숨 돌릴 새 없는 스피디한 전개 그리고 싹틈 없이 꼬여가는 기상천외한 상황 등 '잘 만들어진 연극(Well made play)'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이어>는 현재 대학로 소극장 연극 중 가장 사랑받는 연극 중 하나로 객석점유율 100%, 예매율 1위 등 인기연극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젊은 관객은

물론 중년층까지 공감하며 웃고 즐길 수 있는 대중화된 작품이다.
일시 _ 5월 16일(수)~6월 3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6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2만5천원(청소년 1만5천원) 문의 _ ☎ 429-2972 / 1544-2972

댄스 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힙합, 재즈, 테크노, 브레이크, 팝 댄스에서 부터 역동적이고 세련된 현대무용까지...무대의 에너지가 객석을 일으키고 춤이 언어가 되는 솔직한 뮤지컬이다. 노래를 제외한 모든 언어가 춤으로 표현되고, 극을 이끌어가는 재주꾼과 춤꾼들은 관객과 친근하게 어울린다.
일시 _ 6월 2일(토) 오후 4시, 7시30분 / 3일(일) 오후 3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40,000원 / S석 35,000원 / A석 30,000원
문의 _ 창라이프 ☎ 432-6070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월드투어 콘서트

전 세계를 지휘하는 거장 정명훈, 최정상급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천재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선사하는 뜨거운 열정과 감동이 인천무대에 펼쳐진다.

일시 _ 5월 3일(목) 오후 8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5만원 / S석 3만원 문의 _ 아츠사무국 ☎ 420-2027,8 / 티켓링크 ☎ 1588-7890



Program

베토벤 피아노협주곡4번 G장조 작품58번 Piano Concerto No. 4 in G Major,Op. 58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Symphony Fantastique

바스티유 오케스트라를 떠난 지 6년 만에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화려한 파리 북귀작으로 선택해서 6년 만에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들의 대열에 당당히 합류한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창단30주년을 기념하여 대대적인 월드투어 콘서트를 갖는다. 이번 콘서트는 프랑스에서 시작해 미국(뉴욕 카네기홀-시카고 심포니 센터), 독일(슈투트가르트-프랑크푸르트-뮌헨-에센), 한국(서울-인천-성남-김해), 일본(도쿄-오사카-나고야), 중국(상해)으로 이어진다. 1976년에 창단된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고전주의부터 현대음악에 이르는 광범위한 레퍼토리와 독창적이고 선진적인 프로그램, 열정적이면서 온화한 사운드로 프랑스 국민의 대중적인 지지와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00년 5월, 단원들의 만장일치로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수락한 정명훈은 아시아, 미국, 유럽 투어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며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대열에 올려놓았다.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과 정명훈의 '불길'이 금방 붙는 화학적 반응에 찬사를 보낸 프랑스 언론은 최근(2004년 하반기~2005년 상반기) 그들이 진행한 말러 교향곡 전곡연주를 '음악계의 일대 사건'(르 피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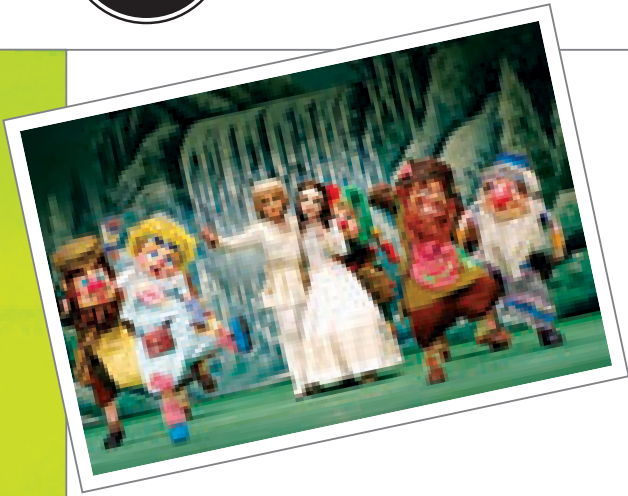
으로 다루는 등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깊은 애정이 식을 줄을 모른다.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라 할 수 있는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을 비롯해, 아직 어리지만 이미 대가의 면모를 내재하고 있는 김선욱의 천재성이 거침없이 발휘될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등 창단 30주년을 맞아 아쉽게 준비된 이번 내한공연은 뜨거운 열정과 깊은 음악적 감흥을 선사하는 뜻 깊은 무대가 될 것이다. 🍷

2007 인천 & 아츠 시민문화 프로그램

- 2월 2일(금) 오후8시 임형주 & 바이에른 챔버오케스트라
- 5월 3일(목) 오후8시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 8월 17일(금) 오후8시~18일(토) 7시 인천 재즈페스티벌
- 10월 중 뮤지컬 (3회) (프로그램 미정)
- 11월 24일(토) 오후8시 뉴에이지 듀오 '시크릿 가든' 내한공연
- 12월 31일(월) 오후10시 2007 제야음악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월	1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 ☎ 420-2784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원, 7천원, 5천원 시립극단 〈불날〉 (~6월) 오후 7시30분 / 1만5천원, 1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 420-2790	2	3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월드투어콘서트 오후 8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5만원, 3만원 ☎ 420-2027~8	4 알프스의 요들송 오후 7시30분 부평문화사랑방 / 1천5백원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오후 7시30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제홀 6천원 / ☎ 760-3455~6	5<백설공주와 야미안왕자> 오후 2, 5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3만원, 2만원 / ☎ 429-2972 어린이뮤지컬 〈말괄량이 삐삐〉 오전 12시40분 한중문화관 / ☎ 760-7860	6<백설공주와 야미안왕자> 오후 2, 5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3만원, 2만원 / ☎ 429-2972 어린이뮤지컬 〈말괄량이 삐삐〉 오전 12시40분 한중문화관 / ☎ 760-7860
I-신포니에타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 다섯 번째 '함께 웃고 모두가 행복해지기' 5월6일(일) / 오후4시 / 인천시립박물관 석남홀 - 여섯번째 '男 + 女 = 好' 5월20일(일) 오후4시 / 인천시립박물관 우현마당(야외)		9 학산수요영화 오전 9시~자정 프리머스 주안점 ☎ 866-3993	10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원, 7천원, 5천원 ☎ 420-2731	11 경기도립극단 〈미운오리새끼- 데미아이야기〉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5천원, 1만원 ☎ 420-2790	12 현철 효 콘서트 오후 3시,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5만5천원, 4만4천원 ☎ 831-9189 한상민의 매직쇼 오후 4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제홀 6천원 / ☎ 760-3455	13 한상민의 매직쇼 오후 4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제홀 6천원 ☎ 760-3455
14	15 남구립여성합창단 제16회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 ☎ 880-4296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6연극 라이어(~6월 3일) 오후 8시 / ☎ 429-297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전석 2만5천원, 청소년 1만5천원	17인천사랑의부부합창단공연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초대 / ☎ 017-327-1522	18 청주오페라앙상블 〈사랑의 하모니〉 오후 7시30분 부평문화사랑방 / 1천5백원	19 하복성문예기예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20 인천색소폰합동연주회 오후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21	22 한국기독교인합창단 제42회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초대 / ☎ 018-209-1176	23 새얼문화재단 제15회 국악의밤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초대 / ☎ 885-3611	24 인천예고 제10회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무료 / ☎ 433-3142	25 정유천 그리고 올드팝 오후 7시30분 부평문화사랑방 1천5백원 ☎ 505-5995	26 퓨전재즈 바이올렛 오후 2시 한중문화관 ☎ 760-7860	27 제3회 가정의날 기념 가족화합 한마당 오후 2시 / ☎ 440-394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인천인무가협회 5월 무용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야외공연장 ☎ 831-6991
28	29 청소년가정과 함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길라 콘서트 오후 7시 / 3만원, 2만원, 1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세종아카데미 ☎ 010-7338-1962	30 제10회 청소년협주곡의밤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876-8646	31 애니메이션콘서트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2만원, 1만5천원, 8천원 인천청소년교향악단 ☎ 428-6040		한운기 인도기행展 신세계 갤러리에서는 5월 23일(수)부터 29일(화)까지 뭄바이, 델리, 라자스탄, 첸나이, 마드라이 등의 인도 지역의 풍경을 주제로 인도기행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작가 한운기가 느낀 인도의 종교와 문화, 역사 그리고 그들 삶 속에 녹아 있는 정신세계를 담아낸 동양화, 판화 등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어린이날 특집 가족뮤지컬 백설공주와 아미안왕자
 ‘마스크플레이뮤지컬’은 독특한 개성과 섬세함 그리고 정교하게 제작되어
 진 독창적 특성의 장르이다. 뮤지컬의 등장인물은 마스크와 다양한 소품 그
 리고 장치를 이용하여 동화 속 나라를 현실로 재현한다. 입체적인 무대제작
 기술과 연출기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를 환상적으로 재구성한다.

일시 _ 5월 5일(토)~6일(일) 오후 2시, 5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_30,000원(1층) / S석_20,000원(2층)
 문의 _ ☎ 429-2972 / 1544-2972

경기도립극단 초청 교류공연 미운 오리새끼

경기도립극단(예술감독 전무송)의 <미운 오리새끼-덴마크 이야기>가 국공립극단 교류공연의 하나로 인천무대에 오른다. <미운 오
 리새끼>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자아를 추구하며 희망을 이야기하는 미운 오리새끼를 통해 사랑과 자
 유, 그리고 희망을 전한다. 획일화된 사회적 틀 속에서 개인에 대한 배려와 용기를 실현해나가는 가족애를 담아낸 작품이다.

일시 _ 5월 11일(금)~5월 13일(일)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_ 인천시립극단 ☎ 420-2790

어버이날 기념콘서트 현철 孝 콘서트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현철이 인천을 찾는다. ‘얏으나 서나 당신생각’ ‘사랑은
 나비인가봐’ ‘못난 내청춘’ ‘청춘을 돌려다오’ 등 수없이 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면서 한국 가요사에
 큰 족적을 남기며 명실상부한 국민가수로 자리하게 된 현철의 주옥같은 히트곡을 모두 들을 수 있다.
 특별 게스트로 가수 김혜연이 출연하여 이번 콘서트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시 _ 5월 12일(토) 오후 3시,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55,000원, S석 44,000원
 문의 _ 월드기획 ☎ 831-9189



실버극단 ‘학산’ 무료 봉사공연

실버극단 ‘학산’은 60·70대 노인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극단이다. 그들이 공연하는 ‘인생’은 실
 버극단 단원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상황극을 연결해 만든 작품으로 젊은 시절 사랑하던 연인들이
 집안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자 힘들게 살다 황혼의 나이에 다시 만나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노인복지회관, 학산소극장, 인천사랑병원에서 공연을 했고 실버문화사랑축제에 참가하
 여 공연형 인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실버극단 ‘학산’의 순회공연은 인천지역의 노인편의시설 및
 병원 등 봉사공연을 희망하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4월부터 10월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_ 남구학산문화원 ☎ 866-3993

이광환 일기

(1945~1970)

‘아버지, 당신의 일기를 보았습니다’

5. 4 ~ 10. 31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전시실(☎ 770-6131~2)



이광환이라는 한 개인의 일상 기록을 통해본 서민의 생활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이색 전시회이다. 1945년부터 1970
 년까지 26년의 기간 동안 20대 청년에서 40대 가장으로 살아간 한 평범한 개인의 삶을 일기를 통해 조명해 본다.
 일기장의 주인공 고(故) 이광환 씨는 1926년 송현동 38번지에서 태어나고 2000년 송현동 56번지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는 평생을 송현동에 살며 지금 한전의 전신인 경전(京城電氣株式會社)의 변전소(전동, 송현동) 직원으로 일하다가 직
 장을 그만두고 구멍가게와 동네 통장 일을 하였다.

그는 봉급내역, 시장에서 산 물건의 가격(금전출납), 빌려주고 받은 돈, 복용한 약의 이름과 용량, 영화나 공연명, 올해
 의 국내외 10대뉴스, 올해의 우리집 10대뉴스, 우리집 기념일에서부터 소소한 직장과 가정사의 일상을 기록하는 치밀함
 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특별전시회는 한 개인의 인물의 특성을 살린 캐리커처(일러스트)로 패널과 영상 등을 만들고 일기내용을 스토리
 텔링 콘텐츠로 구성해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구성했다.



“퇴근하고 변군과 같이 동방극장에 들어가서 미 콜럼비아사 작 ‘세일즈맨의 죽음’을 감상하
 였다. 여지껏 영화감상을 한 중에 제일 감격의 느낌을 주는 영화였다. 월급쟁이는 동서간에
 있어 미국인도 마찬가지로이니 참으로 한심하였으며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눈물을 나오게
 하였으며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 1958년 2월 28일 일기 중에서

“약값으로 어린애들의 의복이 헐벗게 되자 조영의 모(母)는 생각 끝에 유기낚그릇을 저녁에
 갖고 가서 시장 낚그릇 가게에 팔아서 몇 아이 옷과 신발을 사가지고 왔다. 하루속히 건강
 이 회복되어 약 사는 돈으로 어린애들 옷을 사주게 되길 부처님께 빌었다.”

- 1966년 1월 16일 일기 중에서

“...전세계가 들끓는 가운데 인간이 처음으로 달세계에 착륙하였다. 아폴로 11호 우주선의
 암스트롱 씨가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디게 되었던 것이다. 집에서도 TV를 이웃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역사적인 순간을 같이 보기로 하였다.”

- 1969년 7월 21일 일기 중에서

‘간 떨어질 일’ 없도록



우리는 가끔 ‘간 떨어질’ 놀라는 일이 있다. 하지만 진짜 ‘간 떨어질 일’ 때문에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깨뜨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진짜 ‘간 떨어질 일’이란 간 질환으로 인한 간경변증과 간암이다.

간경변증은 바이러스 간염과 알코올이 중요한 원인이고, 20~40%가 간암으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40~60세 중장년기 간암 발생률 만 명당 1~3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전체 암 중에서 사망률이 2~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암환자의 80%는 B형 간염 항원 양성 환자이다. 그 외 C형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증 등이 간암의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술 소비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다. 이에 따라 간암을 비롯한 간질환의 발병률도 매우

높다. 우리나라 간암의 평균 발생 연령은 48.9세이고 남자가 5.3~7.2배 더 많이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 간암의 5년 생존율은 9.6% 정도로 다른 암들과 비교해서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30~50세의 남자는 간암의 조기진단에 상당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간염 바이러스 환자나 간암 발생위험이 있는 환자는 복부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간암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황달, 복부 종괴 등의 증상이 있어 발견된 경우는 대부분 상당히 진행된 경우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다. 따라서 간암 발생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복부초음파와 혈청태아단백검사를 시행해야만 한다.

간암의 치료는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종양을 초기에 외과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간암의 치료 방향은 보통 간암의 진행 정도, 환자의 남아있는 간 기능 및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간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어 외과적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병든 간을 모두 절제하고 새로운 간을 이식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최근 들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간이식은 간암이 상당히 진행되거나 전이가 있는 경우 등은 시행할 수 없고, 평생 면역억제제를 투여 받아야 하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증 장기가 부족하다는 것 등의 문제점이 있다.

간은 인체에서 재생력이 가장 뛰어난 장기이지만 70% 이상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간 질환이 생겨도 자각증상이 쉽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최악의 상황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나 알코올성 간경변증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은 간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과음, 지나친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해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체중이 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규칙적으로 간 검사를 받아 간과 바이러스의 상태를 체크해야 하며, 복부초음파와 혈청태아단백검사를 통해 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간 떨어질 일’이 없도록 평소 건강한 사람은 지나친 음주를 피하고, 몸의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간염 바이러스 등 간 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사람은 간 건강의 정기적인 검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글 · 인천광역시의료원 간 · 담도 · 췌장 외과3과장 양성훈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유치 기원 오행시

우리는 아시안게임의 인천유치를 시민과 함께 기원하기 위해 지난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아시안게임’으로 5행시 짓기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 – 아시아의 별로서
시 – 시각적 효과를 더욱 발하기 위해서는
안 – 안전하고 질서있는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게 – 게임으로 승부해야 될 것이며, 진정한
임 – 임자는 이곳에서 펼쳐져야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양경희_서구 가정2동

아 – 아시아의 대표도시 인천
시 – 시민들의 희망과
안 – 안정되고 힘찬 도시 인천
게 – 게임하면 인천, 2014아시안게임을 대한민국 인천에게
임 – 임명장을 아시아와 대한민국 대표 도시 인천에 주세요.
강윤식_남동구 간석2동

아 – 아시아의 도시 중
시 – 시정이 안정되고
아 – 아시안
게 – 게임을 즐겁게 즐길 수 있고
임 –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시는 인천이다.
류호영_남동구 간석4동

아 – 아시아의 중심도시 코리아의 인천에서
시 – 시비를 하지말고 단결된 모습으로
안 – 안전하게 아시안 경기를 치르었고
게 – 게임은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므로
임 – 임자원은 기본 이상으로 취하노라.
안성모_남구 송의동

아 – 아시아인의 축제 아시안게임
시 –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안 – 안전하고 편안한 인천에서
게 – 게임이 열린다면
임 – 임시방편이지만 아시아를 평정할 수 있다네.
박경숙_부평구 구산동

아 – 아시아의 선두주자 대한민국 인천에서 인천
시 – 시민의 환호와 함께
안 – 안심하고 신명나는
게 –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민 모두가
임 – 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만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시아어 인천으로 오십시오.
이순미_부평구 갈산2동

아 – 아름답고
시 – 시설 좋고
안 – 안전하게
게 – 게임에
임 – 임하시려면 인천으로 오세요~!!
김홍수_남동구 만수4동

아 – 아시나요? 세계의 이목을 받고 몰라보게 급부상하는 인천을
시 – 시간이 흐를수록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도시인지라
안 – 안할 수도 없겠네요, 결국 인천이 단독으로 2014 아시안
게 – 게임을 유치해야하는데, 그것은 시대의 대세이자 숙명입니다.
임 – 임박해오죠?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날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신승남_부평구 산곡3동

아 – 아시아의 명품도시 대한민국 인천시는
시 – 시민들의 하나된 아시안게임 유치 결의로
안 – 안전하고도 완벽한 아시안의 올림픽이 되도록
게 – 게으름없는 준비된 사명감이 있어
임 – 임전무퇴의 필승정신으로, 꼭 성공을 이뤄냅니다.
강성모_남구 주안6동

아 – 아름다운 인천 항도에서
시 – 시원한 바다를 보면서
안 – 안전 보장을 받으면서
게 – 게임 경기를 하는 선수들
임 – 임무를 완수하고 쉴 수 있다.
박성원 · 김효자_중구 운서동


아 – 아름다운 인천
시 – 시민들 모두 모여,
안 – 안팎으로 뻗어가리,
게 – 게임마다 한마음되리
임 – 임이시여, 축복하소서
안영순_연수구 선학동

아 – 아름다운 항구도시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기를
시 – 시원한 밤바다가 아름다운 월미도와 연안부두에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안 –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있지요.
게 – 게임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힘을 모읍시다.
임 – 임전무퇴 정신으로 무장한다면 시민들의 유치 기대감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민 여러분! 소원성취 하세요!
이충훈_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천아시안게임의 토대 웃터골 운동장과 한용단

카툰니스트 · 이영호 (kaljebi@paran.com)

우와~ 신난다!
2014 아시안게임이 우리
인천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의 발단이 된 국내
체육경기의 호사가 바로 인천의
웃터골 운동장과 한용단입니다.



개항과 함께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스포츠는 인천시민의 호기심을 끌며
저변을 넓혀 갔다.



인천 중구 전동, 현 제물포고교 자리에 위치했던 웃터골 운동장은 넓은 천연
그라운드였다.



야구와 육상, 축구 등의 경기가 웃터골 운동장에서 열렸다.



그중에서도 한인들로 구성된 인천 최초의 야구팀인 '한용단'의 인기는
인천 하늘을 찔렀다.



'한용단'은 인천에서 소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통학했던
학생들이 만든 친목회 개념의 야구단으로

우리 친목도 다질겸
야구단 한번
결성해 볼까?

중지.
좋아~

야구단 이름은
한용단으로
하자!



훗날 국회의장을 지낸 박상훈 씨가 이들의 실력을 높이
사 1920년 정식 야구단으로 거듭나게 하였다.



그 후 '한용단'은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최강의 팀으로 발돋움하였고

인천의 자랑 한용단!!



조선에 있는 일본야구팀과 경기를
벌였다.



인천시민은 소리 높여 한용단을 응원하였고, 그렇게
주권을 빼앗긴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다.

한용단
만세~

이겨라~
이겨라!



그러나 1924년 한용단과 일본 '미오' 팀과의 주말
결승전에서

푸헛헛~
조넨진 야구팀
품이야~



일본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인해 한용단이 우승을 놓치게 되었고

스트라이크 아웃~
경기 끝~!!

헉!
이게 어찌~



흥분한 관중이 본부석으로 몰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편파 판정이다
편파~!!

판정은
공정 했으므로~!!



이로 인해 야구금지령이 발령돼
인천시민은 한용단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당분간 야구를
금지하므니다!



2년 후인 1926년 야구금지령이 풀리면서 인천시민은
한용단의 경기를 목청껏 응원할 수 있게 되었다.

흥련~

만세~!!



이렇듯 웃터골 운동장과 한용단은
인천 스포츠의 원조로서, 민족의 정기를
높여 왔고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인천에 행복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사람

임승관

글·김 류 시인 | 사진·김보섭 자유사진가

“모소라는 대나무는 땅에 심겨진 때로부터 처음 5년 동안은 성장하지 않다가 그 후부터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에 약 5센티미터씩 자라기 시작하여 6주 안에 3미터 정도로 빨리 성장한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극동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모소는 5년 동안 자라지 않는 이유가 땅 밑으로 뿌리만 계속 뻗어 내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글은 임승관(林承寬) 씨가 이끄는 인천시민문화센터의 소개 말, 작은 선전 팸플릿에 자신들의 각오와 다짐과 선부르지 않은 마음가짐 같은 것을 적어 세상에 공표하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서 지어낸 비유이거나 했는데 실제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대나무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았다. 모소? 모소라는 신기한 대나무가 있다? 한자로써 어떻게 쓰나?

인터넷을 이리저리 뒤져도 거의 이 비슷한 내용만 올라 있을 뿐 이 식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었다. 아니, 아무래도 좋았다. 이쪽을 건너다보는 임승관 씨의 그 예사롭지 않은 눈빛 속에서 “인간도 지혜로운 사람은 뿌리부터 내릴 줄 알아야 하며, 모소가 뿌리내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듯, 모소로부터 인내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웅변쯤으로 읽고 이해하면 되니까. 그 대나무의 생태는 나중에 알아도 좋을 것이다.

또 이쪽이 찾아낸, “준비하지 않음을 탓해야 할 뿐, 준비하는 시간을 길다고 탓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모소 대나무처럼 깊이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세요. 성공은 끈기와 인내라는 자양분으로 크는 나무입니다.”라는 설교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눈빛이, 삼십대의 끝 무렵을 지나는 나이지만, 낮은 듯 멀리 밝은 불빛을 담고 있는 것은 내면에서 타오르고 있는 끈질긴 열정 때문임을 알 수 있겠다.



문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인천 문화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임승관 씨의 목소리.
그동안 술한 고생과 좌절이 있었겠지만 목소리에서 대단한 자신과 의지를 느끼게 한다.
표정이 좀 굳어 보이는 이유도, 또 보통 이상으로 진지해 보이는 까닭도
거기에 기인하는 것일까.



모소처럼 오래, 튼튼하게 준비해서 온 인천에 문화의,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트리려는 야심 때문일 것이다. 밥 대신 문화를 벌고 있는, 그의 눈 속의 결심의 심지! 그 심지의 불꽃은 조용히 일렁이면서 지난 10년을 이야기한다.

“학교 시절, 그러니까 인하대 미술교육과에 다니면서 사회 참여 분위기에 젖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는 인천연대에 들어가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연수지구에서 활동을 했는데 문화 예술분과에 속해 활동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문화적 목소리로 시민운동을 전개했다고 말씀드리게 옳을 것 같군요.”

음악 공연, 연극 공연, 또는 미술 작품 전시로, 문학 작품으로, 또 영화 제로 사회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다가 2006년에 인천연대로부터 독립을 했다. 독립해 결성한 것이 오늘의 인천시민문화센터. 이 시민문화센터는 여기저기 자생해 있는 문화 동아리들을 규합한 것이었다.

“인천연대 시절과는 활동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인천시민문화센터는 말 그대로 순수 문화 운동의 주체 역할을 목적으로 하니까요.”

문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인천 문화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임승관 씨의 목소리. 그동안 술한 고생과 좌절이 있었겠지만 목소리에서 대단한 자신과 의지를 느끼게 한다. 표정이 좀 굳어 보이는 이유도, 또 보통 이상으로 진지해 보이는 까닭도 거기에 기인하는 것일까.

문득, 그의 표정을 좀 더 부드럽게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의 문화 운동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가 강조하는 말대로 ‘내 자신’이 문화 소비자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동행한 편집장이 선뜻 4백51번째 1만 원 후원 회원이 된다. 이쪽은 분위기가 좀 어색한 듯해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후일을 기약한다. 그때 창 밖 멀리 벚나무들이 하얗게 살 가루를 흩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돈 안 되는 일 하면서 살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아내가 고마울 따름이지요. 아내 없이는...”

아내 역시 임승관 씨와 마찬가지로 사회 운동, 시민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다. 공장의 공원이었다가 지금은 공무원이 되어 22개월짜리 아이와 남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얼마나 마음속으로 고마우랴.

물론 그렇다고 임승관 씨가 별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두 군데 고등학교 미술 강사를 하면서 월 7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이라면 그것을 수입이라고 입 밖에 내어 말하기가 사실 좀 밋쩍은 액수다. 구름이 창밖을 기웃하다가 지나간다. 요즘 날씨가 매우 스산하고 고민스럽다.

아무튼 그런데, 그가 문화 운동이란 것을 벌이고 있다. 6개인가, 7개인가 문화 동아리를 이끌고 관객 운동을 벌이고, 모금을 하고, 연 4회 동아리 발표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참 대견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세상은 좀 더 밝아지고, 동글어지고, 재미 있어지고, 맛있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쪽의 월수입과 그의 수입액이 비슷한 것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사진 작가 앞에서 비로소 잠시 표정을 푼 것은, 그래서 웃는 얼굴을 내보인 것은, 수입이 이렇게 적다는 이야기를 꺼낸 뒤였다. 그게 아주 마음 홀가분한 모양이다.

그 시원한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그가 낸 아트홀 ‘소풍’이란 이름에서 확실히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언뜻 시인 천상병(千祥炳)의 시 「귀천」의 끝부분 한 구절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을 떠올리게 하는 이 소극장 간판에 적힌 이름이 그의 편한 마음을 알게 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 그는 인천의 문화 운동, 인천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시민의 문화 생활을 위해 소풍 왔는지 모른다. 배낭을 메고 세상에 문화 바이러스나 퍼트리러 소풍 온 사내. 우리도 당연히 임승관 씨, 그와 함께 즐겨야 한다. 인천 유일의 문화 시민 단체에 자주 놀러 가야 한다. 그의 아름다운 선의(善意)를 우리들 가슴에 옮겨 와야 한다는 말이다.

곧 있어 무슨 연극이 막을 올리려는지 젊은 연기자들, 스텝들이 어두한 지하 ‘소풍’에 모여 앉아 그야말로 진지하게 토론을 벌이고 있다. 그들의 공통된 표정, 똑같이 진지하고, 그래서 더욱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그들 얼굴에 환하고 가득한 행복감!

이 순수하고 젊은 열정들. 묵묵히 숨어 있는 것처럼, 소리 없이 자신들의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 이웃에게 보여 주고, 즐기게 해 주는 평범하고 착한 이웃, 예술가들.

아직은 다소 어설픈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필연코 그들이 넓힐 우리 인천 문화 예술의 지평을 기대한다. 그들이 이룩할 인천 문화의 유토피아를 기다린다.

‘소풍’이 들어 있는 지하 셋방과 3층 사무실 겸 동아리방이 모두 셋방 신세지만 무엇이 부러운가. 누구 하나 그늘진 얼굴이 없다. 작곡을 하고, 도자기를 빚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 공무원 밴드 동아리, 직장인 연극 동아리들이 방방에 모여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우리는 작년부터 문화바람운동 펼쳐왔습니다. 이 문화바람운동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인천의 좋은 문화 환경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바람은 몇몇의 백 걸음을 위한 사회가 아닌 모두가 함께 한 걸음을 가는 행복을 만드는 봄바람으로 환하게 기지개를 펼 것이고요.”

오늘 저녁 식사 당번이 되어 밥을 푸는 임승관 씨의 얼굴이 한 어머니의 얼굴처럼 푸근하다. ♫



신데렐라 삼남매

우리가족은 모두 6명입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저와 남동생 두 명이 있습니다. 육남매의 셋째이자 외아들이신 우리아버지. 자식들 예뻐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으라마는 아빠의 정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삼남매의 별명은 신데렐라입니다. 왜냐구요? 신데렐라는 시계 바늘이 12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저희 삼남매는 10시만 되면 정확하게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빠의 전화죠. 어디에 있는지, 무얼 하고 있는지, 언제 올 건지 차근차근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인지 그 시간에 전화벨이 울리면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신데렐라야~ 전화 왔네~! 얼른 전화 받고 집에 가라~’ 친구들이 놀려댈 때의 그 부끄러움이란... 익숙해질 만 한데도 매번 친구들은 박장대소를 합니다. 저만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줄 알았는데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하네요. 아빠에게 하소연하듯 얘기하는 동생들의 표정이 얼마나 재밌던지요. 아빠의 넘치는 사랑 덕에 친구들 사이에서 신데렐라가 된 우리 삼남매! 아빠의 넘치는 사랑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뽕어오르는 사랑을 주체 못하시는 아빠 덕에 우리 삼남매 무지 행복하답니다. 신데렐라 삼남매는 아빠의 사랑에 보답하기위해 더욱더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아빠, 알라뷰~!

류현자_부평구 부평4동

아버지와 오토바이

20여년 전,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아버지의 주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였습니다. 아침에 부르릉거리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 아버지가 출근하는 걸 알 수 있었고, 저녁에 부르릉거리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 아버지가 퇴근하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소리는 때로는 정겹게 때로는 무섭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방학을 맞아 저희 다섯 식구(아빠, 엄마, 형, 나, 여동생)는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한 대의 오토바이에 다섯 명이 탄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희는 가능했습니다. 여동생이 맨 앞에 타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타고 그 다음에 제가 타고 그 다음에 형이 타고 맨 마지막에 어머니가 타는 형태의, 참으로 엽기적인 자리 배치였죠. 하지만, 엉덩이가 아프신 어머니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그 높은 언덕길을 걸어서 넘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눈물 나는 정경이지요. 어머니의 관절염이 그 때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 한 쪽이 시큰하고 저려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효도해야겠습니다.

곽희남_계양구 계산2동

새치로 똥친 우리가족

내 나이 이제 스물하고도 다섯! 아직은 싱싱하고 창창한 나이에 옥에 티가 생겨버렸다. 긴 생머리와 귀엽게 내린 앞머리 사이의 불청객, 바로 새치였다. 넓은 범위는 아니었지만 관심있게 보면 티가 나는 앞머리새치는 보통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한다. 청년실업이 판치는 취업대란 속에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밀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았었나보다. 출가외인인 언니가 집에 놀러온 어느 날이었다. 우연히 막둥이의 머리에서 새치를 발견한 언니는 내심 충격이었는지 온 가족들에게 내 새치사건을 떠벌렸다. 그러자 엄마, 오빠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웬지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다들 왜 그러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온 가족은 20대 젊은 나이에 한 아름의 새치를 가지고 있는 내게로 집중되어 있었다. 순식간에 엄마는 족집게를 가져다주셨고, 오빠는 머리 위에서 머리카락을 잡았으며 언니가 새치를 뽑기 시작했다. “다들 무슨 짓이야”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거사(?)는 시작되고 말았다. 새치를 손바닥에 받으면서 이 요상한 포즈가 웃기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지만 순간 가족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코끝이 찡해온다. 행복이 별건가? 이런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따뜻한 가족애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 생각된다.

배보애_부평구 십정동



부치치 못한 편지

시간은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네요. 서두에 무슨 말을 써야 옳은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3년 전 아버지와와 갈등으로 집을 나와 버렸던 그날. 사실 하루 종일 술만 퍼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나이도 아닌데 다 큰 자식이 아버지와 갈등이 심하다는 이유로 집을 나와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구요. 아버지는 매일 술만 드시고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며 우리들을 혼내기 바쁘셨었죠. 그저 어머니가 불쌍했어요. 그 뒤로 집을 나가 돈을 벌고 2년이라는 긴 방황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집에 누워계시고 어머니는 병수발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뺑소니 사고를 당해 몸져 누워계신 아버지. 2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나타난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반겨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보니 지금까지 아파서 누워 계신 아버지가 밍기보다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일주일 전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눈



물을 보이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자식들이 당신처럼 되버릴까봐 겁이 나서 그러셨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는지... 절없는 10대 동생의 학비를 위해 아버지 대신 가장이 되어 남의 집을 돌아다니고 시간 날 때마다 가정부 일을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덜컥 눈물부터 나더군요. 힘들 때마다 눈물을 속으로 삭히시며 우리를 보면 웃음 지으시는 어머니 당신의 모습. 이제 어머니 당신도 쉬실 때가 됐잖아요. 제가 너무 나쁜 자식이었던 거 같아요. 앞으로 제가 집 안의 가장이 될테니 어머니 이제 쉬세요. 그리고 스무 일곱 해를 살아오면서 하지 못한 말... 어머니, 아버지 죄송했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래 오래 사세요. 사랑하는 아들 광일올림...

김광일_서구 석남동

사랑하니까 괜찮아

요즘은 유행을 따라가야 멋쟁이가 되는 시대인 것을 386세대 어른들은 잘 모른다. 한 달 전 친척 결혼식에 간 적이 있다. 딸만 있는 우리집은 언니랑 동생은 유행에 맞게 잘 차려입고 나와 아빠 엄마를 기다렸다. 순간 안방 문이 열리고 부모님이 나오셨다. 근데 웬걸! 옷이 후줄근했다. 결혼식장에 가서 친척들을 만나고 인사를 하는데 나는 아빠 엄마랑 떨어져서 다녔다. 그러던 중 뽕루통 해 있는 나를 보며 엄마가 물었다. “한빛이 어디 아파? 왜 그렇게 입이 빠죽 나와 있어?” “치이. 뻘어. 창피해. 저리가!” “응? 왜? 뭐가 창피한데?” “아빠랑 엄마 옷이 그게 뭐야. 다른 사람한테 뉘떨어지잖아. 패션감각도 없고... 옷이 그게 뭐야.” 그 순간 정적이 흐르고 시끄럽던 그 어떤 소리도 내 귓가에 들려오지 않았다.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엄마. “한빛아, 엄마는 괜찮아. 누가 뭐라든 어떤 눈으로 쳐다보든 무슨 상관이야. 그 시선이 그렇게 중요해? 엄마는 내 옷을 더 사는 대신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밥 한 끼 더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 사주고 너희들 크는 거 보는 게 더 좋아.” 하셨다. 한참을 생각한 후 나는 “그래도 난 나보다 못한 친구가 더 예쁜 옷 입고 있으면 썬나던 걸.”했다.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속삭였다. “엄마가 한빛이를 사랑하니까 그런 것쯤은 괜찮아. 예쁜 옷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 예쁜 옷을 많이 사는 것보다 너를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많은 게 더 행복한 거 아닐까?” 엄마는 웃으며 아빠와 언니 그리고 동생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갔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 한참을 찾았네.”하시는 아빠에게 엄마는 “사랑하는 우리 딸하고 이야기 좀 하고 왔죠.” 하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예쁜 옷은 별거 아닌데 괜히 투정을 부린것 같다. 그깟 예쁜 옷 여러 벌보다 더 값진 것을 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오한빛_남구 학익1동

어린 아들의 근심거리

날마다 어김없이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아파트 밖에서 과일장사 아저씨의 정겨운 음성이 들린다. 그 과일장사 아저씨는 신나는 리듬을 넣어서 ‘참외, 참외! 토마토, 토마토! 수박, 수박!’ 리드미컬하게 과일 이름을 외치시는 것이다. 날마다 집에서 아저씨의 리듬을 들으며 재미있어하곤 했는데 며칠째 아저씨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하루도 빠짐없이 들려오던 아저씨의 음성이 멈추니 어근히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혼자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 있나보다’ 하고 중얼거렸다. 그런데 혼자 중얼거리는 내 말을 다섯 살짜리 아들이 듣고는 “엄마 그 아저씨 좋아해?”하고 엉뚱하게 묻는 것이다. 그래서 웃으며 아저씨 좋아한다고 장난으로 대답을 했다. 그런데 그 날밤 한참 잠을 자다가 아들이 나를 톡 톡 치며 “엄마가 과일장사 아저씨 좋아하면 어떡해! 엄마는 우리 아빠랑 결혼을 했는데, 아빠가 불쌍하잖아.”하는 것이다. 낮에 엄마가 장난으로 한 말 한마디에 어린아이의 잠을 설치게 한 것이었다. 요즘 TV를 보거나 소설을 보면 사랑해선 안 될 사랑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슬픈 사연들이 많은데, 이 어린 다섯 살짜리 우리 아들만도 못한 어른들이 많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다.

장월란_남구 용현2동



다음달 글의 테마는 ‘사진’

다음달 테마는 ‘사진’입니다.

‘사진’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책에 글이나 사진이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창알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5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 440-2072)

시민참여예산 분야별 TV토론회 열립니다

우리는 시민참여예산토론회를 99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예산편성에 앞서 예산의 실질적 수요자인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와 적절한 예산배분 방안을 모색해 합리적인 정책대안 도출과 재정운영의 합리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인터넷의견수렴 : 3월 26일~5월 31일(시 홈페이지)

■ 분야별 TV토론회 : 4월 13일~5월 15일 분야별 개최

분야별	개최일정	장소	담당부서
인터넷의견수렴	3월 26일~5월 31일	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예산담당관실 440-2192
여성보건복지 분야	5월 10일 14:00~17:00	여성의광장	사회복지봉사과 440-2655
지역경제분야	5월 4일 14:00~16:00	시청 대회의실	경제정책과 440-2794
도시균형 건설분야	5월 2일 10:00~12:00	시청 대회의실	건설기획과 440-3713
교통분야	5월 3일 14:00~16:00	교통공사 대회의실	교통기획과 440-3853
문화관광 체육분야	4월 27일 13:30~15:30	인천문화회관 소극장	문화예술과 440-4015
도시개발분야	4월 24일 15:00~17:00	종합문화예술회관	도시계획과 440-3344
환경녹지분야	4월 13일 15:00~17:00	시청 대회의실	환경보전과 440-3512
항만공항 물류분야	4월 25일 15:00~17:00	시청 영상회의실	항만공항지원과 440-3373
경제자유구역 개발	5월 15일 15:00~17:00	인천대학교 미래관	기획정책과 453-7117

■ 문의 : 시 예산담당관실 ☎ 440-2192

중국 진출 신체검사 인천서 받으세요

인하대병원이 중국대사관과 인천지역 최초로 ‘중화인민공화국 입국에 따른 비자발급관련 건강진단 지정병원’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유학 또는 취업 비자발급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러 서울이나 기타 지역까지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인하대병원이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인천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하대병원은 신체검사는 물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의 응급진료에도 최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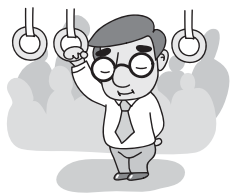
■ 문의 : 인하대병원 ☎ 890-2601~3

오존주의보 발령시 시민 행동요령

우리시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존주의보 발령시 시민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외 운동경기를 자제합니다.
- 노약자 및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자제합니다
- 자동차의 사용을 자제합니다.
- 오존경보(주의보)를 신속히 전파합니다.

■ 문의 : 시 환경보존과 ☎ 440-3525



인천의료원 무료검진합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주민 및 의료 소외 계층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합니다.

■ 기간 및 장소 : 5월 2일~5월 4일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 (내과 7)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검진명 : 고지혈증검사

■ 검진인원 : 50명

※ 신분증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내과 7 ☎ 580-6038

호녀 심청의 후에 뽑습니다

(재)가천문화재단(이사장 이길여)은 우리 전통 문화의 핵심인 효(孝)사상을 함양하기 위해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심청 효행사’ 후보자를 전국에 걸쳐 공모합니다.

■ 응모자격 : 효심이 뛰어난 12~18세 대한민국 국적의 여학생으로 아래 중 한 가지 추천을 받은 사람

-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관련 부서의 장
- 각 시, 도 교육감 및 산하 교육장, 각급 학교장
- 성균관 유림, 향교의 전교, 문화원의 대표
- 언론기관(방송, 신문) 국장급이상 현직 언론인
- 20인 이상의 추천인단(친인척은 무효)

■ 후보 접수 : 5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우편이나 직접 접수

■ 심사 및 발표 : 현지실사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후 8월 중 발표 예정

■ 시상 : 대상 1명 1,000만원, 본상 2명 300만원, 심청특별상 7명 200만원의 장학금과 상패

■ 특전

- 가천의과대 길병원 입원시 진료비 할인
- 경원대학교 수시 모집 응시 자격
- 가천학원, 경원학원, 길병원 입사 공채시 특전
- 수상자 본인 및 부모 무료 종합건강검진(50만원 상당, 2장) 등

■ 문의 : (재)가천문화재단 ☎ 460-3460, 833-2600
www.gachon.or.kr

‘건강 in’ 이용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던 건강정보를 별도의 사이트로 분리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 in’ (http://hi.nhic.or.kr)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이 사이트에서는 ①건강, 질병정보 2,462개의 콘텐츠 ②전문가칼럼, 건강FAQ 정보 등 1,110개 콘텐츠 ③장애인, 희귀 난치성 질환자 대상 정보 ④임신, 출산 육아정보 ⑤의학용어사전, 의학백과사전 ⑥인터넷 주치의에 의한 건강상담 ⑦자신의 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한 건강나이 알아보기, 종합평가, 맞춤형 영양, 운동, 행동요법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전문가에 의하여 검증된 정보들로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인천남동지사 ☎ 452-7114 1577-1000,
www.nhic.or.kr

인권교육강사 양성합니다

인권교육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강사들을 위한 입문교육이 열립니다. 수료하신 분들은 인권교육 강사단 모임에 참가해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대상 강의를 하게 됩니다.

■ 강의 일시

- 1강 : 5월12일(토) 오전 10시~12시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 2강 : 5월12일(토) 오후 1시~3시
인권교육을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
- 3강 : 5월19일(토) 오전 10시~12시 인권교육 맛보기1
- 4강 : 5월19일(토) 오후 1시~3시 인권교육 맛보기2

■ 교육장소 : 인천참여자치연대(부평삼거리역 부근)

■ 참가비 : 2만원(전체 교육과정, 교재비 포함)

■ 주최 : 인천희망21,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 접수 및 문의전화 : 인천희망21 ☎ 426-2621

〈쉬운 중국어〉교재 출간

한국어와 중국어간의 비슷한 발음 체계를 활용해서 중국어를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국어 교재가 새로 나왔다. 시립 인천전문대의 세무회계과 김원재 교수와 중국학과 강은주 강사는 공동으로 저서서 성격의 〈쉬운 중국어〉(무역경영사 출판)를 최근 펴냈다.

이 책이 다른 중국어 교재와 다른 것은 양국 언어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춰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한자 발음을 중국어를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심본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말의 70%가 중국에서 건넌 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자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될 당시에는 양국의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합니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투약사범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여 마약류 투약·중독은 물론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단속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 경작하거나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했을 때는 지체없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없이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 판매,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신고전화 :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와

☎ 860-4743~9, 국번없이 127

인천중소기업 콜센터 이용하세요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경영시 발생하는 각종 애로요인들에 대해 원콜, 원클릭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인천중소기업 콜센터’가 4월 5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중소기업콜센터는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인 서비스 향상 및 제도개선을 위한 사후관리(Call-Back)를 통해 상담이력을 정리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부상담 (직원활용) (1566-0200-담당번호)	전문가상담 (외부인력 활용) (1566-0200-0)
① 자금지원 : 시설자금, 운전자금 ② 공장설립 : 설비절차, 공장창업, 종설, 변경 ③ 디자인 : 디자인 일반 ④ 기술지원 : ISO인증 안내, 기술지도 ⑤ 경영컨설팅 :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절차 ⑥ 판매지원 : 전시회 참가 등 ⑦ 발명창업 : 아이디어 발명 및 일반 창업 ⑧ 기타사항 : 그 외의 전문상담 분야	① 법률 : 법률자문 ② 특허 : 특허출원 절차, 발명아이디어 ③ 생산 : 생산성향상, 품질관리 ④ 관세 :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⑤ 회계 :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⑥ 경영 : 마케팅 전략수립, 시장조사 ⑦ 노무 : 임금노사고용 등 ⑧ 창업 : 서비스창업, 벤처창업 등

■ 문의 : 중소기업지원센터 ☎ 1566-0200

한자 발음은 똑같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지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조선시대 초만 해도 우리말의 한자 발음 절반가량이 중국과 같았다”며 “우리말과 중국어의 자모 발음이 어떤 원칙에 따라서 변화해 왔는가를 파악하면 중국어를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을 소재로 한 노래 공모합니다

인천그린실버악단은 우리시대의 정서가 담긴 인천을 소재로 한 노래를 공모합니다.

- **공모기간** : 5월 1일~9월 30일(5개월간)
- **공모대상자** : 인천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작곡가, 작사가 (만 18세 이상)
- **총 시상금** : 2,600,000원(상패 및 공연녹화 DVD, CD.)
- **부문별** : 최우수 1명 1,500,000원, 우수상 1명 500,000원, 장려상 3명 각 200,000원.
- **혜택** : 당선작은 RNG 후 12월(공모기념 발표 공연)시 공연 지정곡으로 선정됩니다.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359-20 인천그린실버악단 <인천을 소재로 한 노래 공모>담당자 앞
 -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 <http://www.greensilver.net>-(인천을 소재로 한 노래 공모)코너
 - 방문접수 : 인천그린실버악단 사무처(428-4422)
- **제출서류** : 1. 공모신청서 1부(신청서는 악단 홈페이지 및 악단 사무실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발표되지 않은 가사가 포함된 순수창작의 악보 1부
3. 작사·작곡의 배경 및 해설 1부
4. 주민등록 초본 1부
- **당선작 발표** : 10월 22일
 - 당선작에 한하여 인천그린실버악단이 3년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 공모기념 공연 : 2007년 12월경(추후 공고)
- **문의** : 인천그린실버악단 ☎ 428-4422

출산장려, 인천이 으뜸

우리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와 함께 2007년도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인구보건복지협회 멀티미디어 교육실에서 임신부교실 실시
- 출산준비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제공
- 산전검사 의료서비스 풍진, 임신성당뇨, 기형아 정밀검사, 초음파 검사 실시
- 분만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 의료서비스 제공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 각종 상담 서비스 제공 및 불임부부를 위한 정관, 난관 복원수술 및 검사 실시
- **문의** : 인구보건복지협회 ☎ 422-0077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 추진합니다

이륜차의 횡단보도 및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2006년에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12% 이상 증가하고, 2007년도에도 34%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중부경찰서에서는 시민단체와 함께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을 추진합니다.

- **단속대상** :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 **추진방법**
 - 4월 30일까지는 홍보기간으로 위반자는 ‘교통질서 협조요청서’ 발부, 5월 1일부터는 법규위반을 하는 경우 엄정단속
- **문의** : 인천경찰청 ☎ 868-9024, 중부경찰서 ☎ 764-5641

제10회 바다그리기 대회 열립니다

경인일보와 가천문화재단, 해양경찰청이 주최하는 ‘제10회 바다그리기 대회’가 열립니다. 올해는 ‘인천 사랑, 바다 사랑’ 동판 제막식과 환경 뮤지컬(웅궁 도깨비) 공연 등 다양한 식전·식후 행사도 펼쳐집니다.

- **참가자격** : 초·중·고교생, 유치원생(미술학원) 중·고등부는 지역 제한 없음 ※참가비 없음
- **일시** : 5월 19일(토)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우천시 순연)
- **장소** : •초등부 : 월미도 문화의 거리, 자유공원, 인천항 갑문관리소 잔디밭, 아암도 해안공원 등 4곳(택일)
•중·고등부 : 인천항 갑문관리소 잔디밭
- **참가신청** : 5월 4일까지 경인일보 인천본사
 - 초등부 : 인천지역 각 초교, 유치원, 학원별로 일괄 접수
 - 중·고등부 : 학교장 추천 접수
- **준비물** : 그림물감, 크레파스 등 화구, 중등 4절·고등 3절 도화지
- **문의** : 경인일보 인천본사 ☎ 861-3200~3

토요아외거리전 열립니다

‘제7회 홍예문 가는 길! 토요아외거리전’을 은행나무 숲길에서 개최합니다.

- **개막식** : 5월 19일(토) 오후 2시
- **전시회** : 5월 19일(토) 오전 11시~오후 5시
- **전시내용** : 개항기 근대 건축물 사진전, 공예, 미술 등
- **공연 및 먹거리 축제(무료)** : 플롯 & 오키리나 연주회, 인천 향토 춤사위 등
- **시민참여 시연회(무료)** : 창작 디자인, 풍선아트, 어린이를 위한 페이스 페인팅, 목공예, 서예, 키즈사이언스 등
- **장소** : 인천예총 미추홀문화회관(동인천 구/인천여고 은행나무길)
- **문의** : 미추홀문화회관 ☎ 765-0220, 0250
www.mchart.co.kr

‘토크하우스’ 문을 엽니다

토크하우스(Talk House)는 인천에 거주하는 성인과 외국인을 위한 오프라인 외국어 카페입니다.

- **위치** : 남동구 구월동 현대해상빌딩 8층
- **운영시간** : 주중(오전 10시~오후 10시), 주말(오전 10시~오후 6시)
- **회원제 운영** : 스터디 클럽은 회원제로 운영하며 클럽당 회원은 6~8명으로 구성됨. 그 외에 다양한 테마프로그램은 비회원들도 참여가능
- **회비** : 10,000원/월
- **클럽리더 모집** : 응시원서 제출
(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양식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송부요망)
- **운영 프로그램** : Study Club 활동, Fun 프로그램, 강좌프로그램, INFO ZONE 등
- **문의** : 인천국제교류센터 국제교육팀 김혜경전문위원 ☎ 441-8164, 441-8189 016-9373-9144

미추홀문화회관 여름학기 수강생 모집

미추홀문화회관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강좌 위주의 다양한 강좌와 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무료 강좌 개설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 **접수기간** : 5월 14일~6월 9일
- **강좌기간** : 6월 5일~8월 26일 (3개월)
- **장소** : (신)중구보건소 4층 미추홀문화회관
- **즐겁고 건강한 삶을 위한 명사 초청 특강**
 1. 역사의 인물을 통해서 본 성공하는 어린이의 조건 7월 25일, 27일 오후 12시 10분~오후 1시 30분
 2.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안전교육체험 특강 6월 12일 화요일 오후 4시~6시
- **문화시민을 위한 무료 강좌**
어린이한자, 어린이중국어, 어린이 기초생활영어 등 23개 강좌
- **정규강좌** : 공예, 미술, 무용, 음악, 어학 등 16개 강좌
- **문의** : 미추홀문화회관 ☎ 765-0220, 0250
www.mchart.co.kr

우리말 ‘똥’ 바로 알기



신발이 커서 벗어지다?(○) / 신발이 커서 벗겨지다 (X)

‘신발이 커서 자꾸 벗겨진다’에서 ‘벗겨진다’는 ‘벗어진다’로 써야 합니다. 외부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떼어지거나 떨어지는 경우에는 ‘벗겨지다’를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벗어지

다’를 씁니다. ‘신발이 작아서 잘 안 벗겨진다’와 ‘신발이 커서 걸을 때마다 벗어진다’ ‘넘어져서 무릎이 벗어졌다’로 구분하여 씁니다.

이달의 국가유공자 김복출(金福出) 무공수훈자



김복출유공자는 대한민국 국방경비대 시절인 1947년 5월 군에 입대하여 조국 국방수호에 투신하였으며 6·25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다대한 전공을 수립하였다. 1950년 10월 한국군 1사단 12연대의 평양입성 선발부대의 역사를 창출하였으며 1952년 2월 육군 제1사단 12연대 3대대 9중대 소대장으로 임진강 북방 두메리고

지전투로 인해 화랑 무공훈장을 수상하였다. 1953년 1월 동부대 소총 중대장으로 포로생포작전을 수행하여 다수의 북한군 포로를 생포하여 화랑 무공훈장을 수상하는 전

공을 세웠고 1953년 5월부터 1953년 7월까지의 한국전 최후 휴전작전으로 연천 북방 쿤고지 전투에 참가하여 생사를 초월한 최악의 공방전에서 쿤고지를 점령, 탈환하는 혁혁한 전공수립하여 충무무공훈장을 수상하였다.

김유공자는 1959년 3월 육군소령으로 예편 전역 후 대한통운 인천지사에 입사, 정년 퇴직 후 무공수훈자회에 입회하여 남구지회장, 인천시지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현재 무공수훈자회 및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환경정화활동, 주차문화제도 등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료제공_인천보훈지청 ☎ 430-0125

‘너들이
곶갸 맛을
알아,
영양
덩어리
꽃게’



몸통의 껍데기는 길이 약 8.5cm, 너비 약 17.5cm의 옆으로 퍼진 마름모꼴이며 다리가 양쪽에 각각 다섯 개씩 있다. 수심 20~30m의 바닷가 모래바닥에서 서식하며 겨울에는 깊은 곳이나 먼 바다로 이동해 겨울잠을 잔다, 3월 하순경부터 산란을 위해 얕은 곳이나 만의 안쪽으로 이동하는데 산란기가 6~8월이라 5월과 6월의 암게를 최고로 친다.

꽃게는 연평도 지역에서 많이 생산돼 한때 전국 생산량 1위였으나, 현재 생산량이 많이 줄고 있어 아쉽다.

맛도 맛있지만 꽃게는 영양도 그만이다. 각종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위의 기능을 강화해 음식물 소화를 촉진시키고 입맛을 돋워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꽃게 속에 함유된 타우린 성분은 간 기능 강화와 여성들의 산후풍, 월경불순 치료에도 탁월한 효능을 자랑한다. 로이신, 아르기닌 등 필수 아미노산 성분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성장기 어린이, 노인에게도 좋다. ♡

자료제공 · 시 수산과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어머니의 품속 같은 그 곳,
행복감에 젖는다



박갑이 作 · 캔버스에 유화 · 90×60cm · 2005

길 따라 무작정 달려본다. 공허한 마음 조금이나마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래포구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수산동의 야트막한 언덕 너머 하얀 속살을 드러낸 배꽃들이 수줍게 웃으며 우리들을 반갑게 맞는다. 매년 이맘 때면 어김없이 이곳에서 고향을 그리는 포근한 어머니의 품속을 그리움으로 물들인다.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내 어릴적 추억의 페이지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 보는 것도 내일을 향한 또 다른 희망일터이다.

- 박갑이 -